

리아호나

구원 사업의 단일성, 14쪽

절망으로부터 배움을 얻으며, 26쪽

단정함이 가져오는 세 가지 축복, 36쪽

청소년들이 가족 역사에 참여하는

다섯 가지 방법, 58쪽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잠언 31:10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신앙의 기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생명의 떡

특집 기사

14 선교, 가족 역사, 그리고 성전 사업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우리의 조상에 대한 탐구와 복음
전파는 궤를 같이한다.

- 20 가정: 배움의 중심지
가정에서 배운 교훈은 평생에 걸쳐,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진다.
- 26 물 위로
존 워너
나는 우울증과 불안의 파도에 파묻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셨다.
- 28 각국의 개척자들:
칠레에서 일어난 개종과 변화
네스토르 쿠르벨로
오늘날 칠레는 거의 국민 30명당 한
사람이 교회 회원이다.
- 36 단정함을 선택하는 용기
캐럴 에프 맥공키
단정함의 교리와 축복은 무엇인가?

교회 본부 기사

- 8 교회에서 봉사함:
제이 형제님, 고맙습니다
크리스틴 퍼셀
- 9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옥배추
엘런 시 젠슨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리조카의 심장
마리나 페트로바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속임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사탄은 플라이 낚시꾼처럼 모조
미끼를 사용하여 우리를 낚아챱니다.

표지
앞 표지 사진: 레슬린 날슨.
표지 안쪽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44

44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라

믿음을 용감하게 지킨 청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48 내 삶 속의 복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나의 간증들

아이비 노쉬
물문경에 대한 간증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 대한 믿음에도 회의감이 들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봉사하기 좋은 때는?

50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도덕적 선택의지인가?
마이클 알 모리스
내 친구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였다. 나는 자유롭게 선교부를 선택할 수 있는가?

52 질의응답
생각을 다잡으려고 하지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54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법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질문 방법을 알아본다.

57 힘과 성공을 찾는 법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안전과 성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8 가족 역사—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가족 역사에 참여하여 몇 가지 뜻밖의 축복을 찾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61 포스터:
조상을 찾으면 나를 발견합니다

62 선교 사업을 반대하는 이상한 힘
알세니르 데 소우자
내가 선교 사업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64 해야 할 일 미리 배우기
카트린 아펠세스-아넨슨
전임 선교사의 삶은 다르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청소년들은 그와 같은 변화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다.



78

66 미래의 봉사를 위해 지금부터 봉사할 거예요
미체 발보사
왜 물문은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는 대신 교회 청소를 돕기로 했나요?

68 마틸드, 청녀가 될 준비를 하다
젠 윌크스
청녀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70 음악: 빛을 발하리
젠 핀보로우, 재니스 캡 페리

71 특별한 증인:
어떻게 가족 역사 사업을 도울까요?
쿠엔틴 엘 쿡 장로

72 가정에서 초등학교 적용하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에린 샌더슨 및 진 빙엄

74 전 세계 친구들:
저는 칠레에 사는 바르바라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

76 우리들 이야기

77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빛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타고 갔던 말들마저 달아나 버렸어요.

7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가족은 한 팀
셰랄리 하디



58

2014년 10월호 제51권, 제10호

리야호나 10990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앤 벨슨, 앨런 에이치 옥스, 앤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놀드,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티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보

출판 담당자: 리사 시 로페즈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케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엔드루즈, 매디 디 플리트,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건트, 인디 앤 레티,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커,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톰니, 폴 벤덴버그, 머시사 윗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넨스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루스, 매디 엠 벤틀리, 시 캄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위크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벅크스, 콘니 바스프 브릿지, 줄리 버트, 브라이언 더블유 지거, 드니스 쿠버, 지니 제이 날슨, 게이비 테이트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i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배부 센터나 워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야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75호, 제51권, 제10호

발행: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야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ids.org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야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i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i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야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야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ctober 2014 Vol. 38 No. 10.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i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가족 역사—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58쪽: 일지 쓰기 활동을 한다. 가족들에게 그날 일어난 일, 혹은 수년 전 추억 등 그들의 삶에 관하여 무언가를 기록하도록 권유한다. 여러 방법으로 일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일지에 적거나 타자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며 녹음기에 녹음을 할 수도 있다. 가족에게 계속해서 자주 일지에 기록하라고 권한다.

“해야 할 일 미리 배우기”, 64쪽: 노르웨이의 한 와드에서 한 것처럼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해 본다.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요리나 흰 셔츠 다림질 방법 배우기 등 그 와드에서 했던 활동을 그대로 해 보거나 선교 임지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 밖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야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쪽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20, 36, 54

가족 역사, 14, 58, 71

가족, 12, 20, 61, 72, 78

간증, 48

교회 역사, 28

구원 사업, 14, 20, 54, 58, 62, 64

금식, 4

기도, 4, 40, 71

단정함, 36

물문경, 48

봉사, 8, 66

부름, 8

사랑, 8, 41

선교 사업, 14, 28, 62, 64

선택의지, 50

성전 사업, 14, 58

속죄, 10, 80

시련, 12, 26, 62

신앙, 4, 26

약함, 10

예레미야, 9

예수 그리스도, 7, 57

우물증, 26, 42

유혹을 극복함, 43, 44, 52, 80

은혜, 10

청녀, 68

칠레, 28, 74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신앙의 기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대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간단한 말로 우리 마음속 느낌들을 표현합니다. 통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느낌이 수반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응답이 언제 오든 순종하겠다는 다짐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물문경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4~5)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채우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기도에 관한 그 놀라운 약속을 시험해 보고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권고를 받을 때마다 그 약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겸손한 선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약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으로부터 받는 권고에도 그 약속이 적용됩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서 효력을 내도록 하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알기 위해 여쭙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실행할 진정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진정한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기에 앞서 물문경을 읽는 구도자는 이 책이 참되다는 확신과 함께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책을 번역했다는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고 나면 그 밖의 진리들을 확인해 줄 성신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그 두 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성신이 증거해 주시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구주를 향하며, 또한 구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실 다른 사람들을 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온유해지고, 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금식할 때,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구주의 기도와 소망에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구주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행하도록 기도합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아 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기도와 금식의 도움으로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방문 대상자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잃었다면 사후의 생이나 영원한 가족에 대해 토론해 보면 어떻게 고려해 본다. 그들이 그 원리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금식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이 증거해 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움틀 것이라는 약속이 물몬경에 담겨 있는 것도 그러한 까닭입니다.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모로나이서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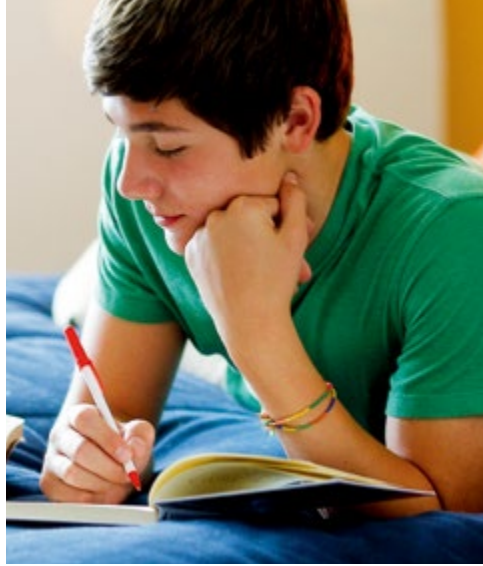
우리는 금식 주 일요일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습니다. 금식 주

일요일은 엘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같은 경험을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들은 권능과 권세와 사랑으로 레이맨인들을 가르치고자 영원한 진리를 알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엘마서 17:3, 9 참조)

금식 주 일요일에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최소 우리가 거르는 두 끼에 상당하는, 후한 금식

기도하기에 앞서 준비합니다

아 이어링 회장님은 기도가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일깨워 주셨다. 시간을 내어 기도에 대한 준비를 할 때 그런 양방향으로 나누는 대화 가능해진다. 여러분은 날마다 몇 분간 일지를 사용하여 기도를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은 축복들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응답이 필요한 질문들을 목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다음 찬송가를 부르거나 경전을 몇 구절 읽으면서 영을 초대한다.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신이 인도하는 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주의한다.(교리와 성약 8:2~3 참조) 여러분의 경험을 일지에 기록하고 여러분이 받는 응답을 흥미해 본다. 또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95~97쪽의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하고 성신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린이

기도 샌드위치

여 러분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며 마칩니다. 그 중간에 하는 말은 샌드위치 속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고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속에 넣고 싶은 것들을 고르세요. 그 옆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적으세요. 축복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하거나, 걱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거나, 축복을 구하거나, 궁금한 것에 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샌드위치를 잘라 내거나 또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할 말이 생각나도록 그 샌드위치를 집에 걸어 두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것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삶과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생명의 떡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

예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한복음 6:51)라고 말씀하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즉 그날 필요한 도움과 자양분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라고 말했다. “…… 주님의 권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매일 그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작은 것까지도 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시려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고 말씀하십니다.”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 사항을 채워 주시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을 그분에게서 구하게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권유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초기 사도들의 경험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들 또한 생명의 떡을 갈망했으며,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 와서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며,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구원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²

보충 성구

요한복음 6:32~35; 엘마서 5:34; 제3니파이 20:3~8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일상에서 우리는 축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월호, 25쪽.
2. 제프리 알 홀런드, “우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65쪽.

생각해 볼 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어떻게 그분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가?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천여 명의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다. 사흘 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리를 붙잡히 여기노라 그들이 ……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시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마가복음 8:1~9).

제이 형제님, 고맙습니다

크리스틴 퍼셀

교회 곳곳에서 진실하게 봉사하는 수많은 종들! 그들이 보여 주는 사랑과 준비와 헌신과 영성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 일은 일요일이야.” 내 무릎에 바싹 달라붙는 다섯 살배기 딸에게 말했다. 아이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와, 신 난다. 그럼 제이 형제님을 뵈 수 있겠네.” 아이가 말했다.

내 마음은 감사로 채워졌다.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워드로 나가게 된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해 준 초등학교 교사의 사랑과 자상함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미국 중서부의 집을 떠나 2,173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온 가족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특히 아직 어린 아이인 시즌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될 만한 일이기도 했다. 선천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딸은 낯선 환경을 무서워했으며, 새 워드로 나가는 첫 번째 주에는 교회 참석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온화하고 헌신적인 제이 형제님은 적절하게 익살과 애정을 섞어 보이며 시즌의 신뢰를 얻었다. 첫 번째 일요일에 그는 몸을 쭉그리고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 귀염둥이! 우리 반에서 재미있게 공부하자.”

그렇게 여러 주가 흐르면서 시즌은

주중의 그 어떤 날보다도 일요일을 기다렸다. 아이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둘러보며 자기 선생님을 찾았다. 그는 싱긋 웃으며 인사했다.

여러 해 동안 제이 형제님은 항상 반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작은 선물로 그들을 기억해 주었다. 생일을 앞두고 있을 때, 시즌이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 하는 제일 중요한 손님은 바로 제이 형제님이었다.

그는 자신이 우리 꼬맹이 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 다섯 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본받고 있는지 그는 인식하고 있을까? 그가 우리 딸 인생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것이 어머니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는 알 수 있을까?

이후에 시즌은 에드워드 형제님의 반으로 진급했고, 아이의 멋진 초등학교 시절은 계속 이어졌다. 겸손하고 성실하며 잘 준비된 형제 자매들 모두 시즌의 인생에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봉사해 준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아 왔다. 걸출한 소년단원 대장, 오래 참는 제사 정원회 고문, 참을성 많은 세미나리 교사, 탁월한 청년 회장단, 자상한 감독님을 떠올려 본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만 특별히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헌신적인 형제 자매들이 봉사를 통해 우리와 같은 여러 가족의 삶에 감동을 주기에, “제이 형제”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영성과 헌신, 준비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교회 곳곳에서 우리 가족을 도와준 수많은 성실한 종들에게 감사드린다. ■ 글쓴이는 미국 네바다에 산다.



삶을 바꾸려는 노력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엠틀러셀 블라드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오지혜로우라”,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20쪽.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기에 살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후기의 집합 동안에 소망의 시기를’ 예견하게 하셨[습니다.]”¹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는 예루살렘 근방 아나돏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부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느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후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어 제 “입에 대시며” 그분의 말씀을 제 입 안으로 넣어 주셨습니다.²

저는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 치세인 주전 626~586년까지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예언했습니다.³ 저는 물몬경의 선지자

리하이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예루살렘 백성의 사악함을 규탄하고 그 위대한 성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⁴

주님께서는 저의 예언을 “두루마리 책”⁵에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불살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예언을 다시 기록하고 거기에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하라고 명하셨습니다.⁶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성전 총감독의 아들 바스홀은 저를 때리고

고랑을 채웠습니다. 폭도는 제가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저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인기 없는 선지자로 자주 구덩이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참으로 저는 지금껏 사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⁷

저는 그와 같은 고난의 시대에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후기에 집합하리라는 것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시며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실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⁸

힘든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저는 복음에 대한 헌신이 평안을 안겨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교를 쌓아 간다면, 우리 모두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주
1. 린다 케이 버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마음에 새겼는가?”,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1쪽.
2. 예레미야 1:1~9 참조.
3. 경전 안내서 “예레미야”, scriptures.lds.org 참조.
4. 예레미야 6장; 니파이전서 1:13, 18~20 참조.
5. 예레미야 36:2.
6. 예레미야 36:23~32 참조.
7. 예레미야 20:2; 26:8; 38:6 참조.
8. 예레미야 31:33, 3:14.



두루마리 사진: 콜링; DVIDMCH/STOCK/THINKSTOCK; 예레미야: WALTER RANE

옥배추

엘런 시 젠슨

타이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어느 준비 날에 나는 동반자와 함께 잠시 짬을 내어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관을 관람했다. 사람들의 눈길을 주로 끄는 것은 '옥배추'라고 하는 미술 작품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작품에 감탄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옥으로 만든 배추로만 보였다. 물론 예쁘긴 했지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 있을 터였다.

동반자와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서 그녀에게 물었다. "자매님은 옥배추를 보고 어땠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요? 그건 그냥 배추잖아요." 내가 말했다.

"뭐라고요? 옥배추는 제 인생을 상징해요!" 그녀가 외쳤다.

"그 배추가요?"

"네! 그 이야기 모르세요?"

"무슨 이야기요?"

동반자는 내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옳았다. 옥배추는 내 삶과 선교 사업의 상징이 되었다.

옥 조각물이 큰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옥이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완벽한 옥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완벽한 옥으로

만든 조각물은 높은 가격에 팔린다. 옥배추는 한쪽이 푸르고 다른 쪽은 희었으며 금이 가고 물결 무늬가 있다. 노련한 조각가라면 그런 옥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그런 통념을 깨는 한 조각가가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그를 조각의 달인으로 추앙했다고 한다.

만약 옥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조각가와 나누게 될 대화를 이렇게 그려 볼 수 있겠다. 옥 조각을 집어 드는 조각가를 상상해 보자.

"무엇을 원하세요?" 옥이 묻는다.

"조각용 옥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각가가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옥을 찾아보세요. 저는 쓸모가 없어요. 저는 두 가지

빛깔이 심하게 섞여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예쁜 단색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금이 가 있고 물결 무늬까지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소리 말고 저를 믿으세요. 저는 조각의 달인이랍니다. 저는 당신을 가지고 걸작을 만들겠어요."

옥배추의 매우 경이로운 점은 이 익명의 거장이 두 가지 색깔과 물결 무늬, 금이 간 표면 등과 같은 옥의 약점을 이용하여 실물과 더 비슷하게 배추를 만들어 냈다는 데 있다. 흐릿하게 흰 부분은 배추 줄기가, 금이 난 부분과 물결 무늬는 살아 있는 이파리가 되었다. 이 옥의 '결점'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생생한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나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품성은 종종 미모나 매력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주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권고가 지금도 메아리가 되어 울립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토마스 에스 몬슨, "젯빛 날개 카나리아", 리아호나, 2010년 6월호, 4쪽.



이 작품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중국의 한 왕가에 바치는 선물이 되었고, 아시아의 여러 아름다운 궁전을 장식했으며, 마침내 타이완의 박물관에 전시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이더서 12장 27절이 떠올랐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옥배추를 보고 난 후 이 경전 구절은 내게 새로운 빛으로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그 옥 조각과 비슷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조각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실 장인 조각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시각으로, 종종 우리의 불완전함을 의식하며, 우리는 결코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낙담한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보신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구주의 속죄가 작용하도록 허락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다듬어서 언젠가 만왕의 왕과 함께 살게 될 걸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을까?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커다란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자신의 단점에만 집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자신의 결점에만 신경 쓰도록 만드신 게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아름다운 걸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다음 성구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시는지를 알아본다. 출애굽기 4:10~12; 예레미야 1:4~10; 니파이전서 4:1~6; 앨마서 26:12; 교리와 성약 35:17~18.

리조카의 심장

마리나 페트로바

남편과 나는 1995년에 러시아에서 교회에 가입했고 그 이듬해에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어린 두 딸도 우리에게 인봉되었다. 2년 뒤에 우리는 또 다른 딸 리조카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지만 우리 아기는 생후 이틀째 되는 날부터 잘 먹지를 않았다. 한 달 사이에 아이 체중은 300그램밖에 늘지 않았다.

아동 의료 센터의 직원은 아이에게 더 자주 먹이라고 했다. 아이는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남편은 아이를 도시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곧바로 '천천적 심장 이상' 진단을 내렸다. 한쪽 심장 판막이 작동하지 않는 탓에 양 허파로 오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먹거나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수술이 필요했으나 러시아에서는 두 살이 넘어야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딸은 겨우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의사는 치료 처방을 내리고서 나중에 아이가 두 살이 되면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한 달 뒤, 리조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우리는 아이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도움을 청하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면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주님을 신뢰했으며 모든 게 잘 되리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아이를 달래려 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윽고 우리는 도착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입원실로 달려갔다. 리조카의 두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숨쉬는 것도 힘들어했다. 말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의사에게 아이에 관해 이야기했고 의료진은 아이를 집중 치료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아이의 폐가 부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의료진은 아이를 인공 호흡기에 연결했다.

이튿날 우리는 심장 수술부 책임자와 면담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이런 수술을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좀 더 큰 아이들한테만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되었죠?”

“두 달이요.” 우리가 답했다.

“아이는 이미 많이 악화되었어요. 너무 어린데다 허파의 부기는 치료가 까다롭지만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그런 수술을 한 적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인공 이중 판막을 구입해 주셔야 하는데,

값이 굉장히 비싸죠. 2,100달러(현재 약 2,100만원—옮긴이) 정도 됩니다. 수술은 나흘 안에 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담? 우리도, 지인 중에도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의 관대함과 주님의 자비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남편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판막을 구입했다.

우리 지부의 모든 형제 자매뿐 아니라 우리 지역 내 많은 후기 성도와 선교사들이 우리의 어린 딸을 위해 기도와 금식을 해 주었다. 그들의 도움을 느낄 수 있었다. 수술 날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성신이 함께하심을 느꼈으며,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의사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모든 게 잘 될 것이었다.

수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의사는 조금 어리둥절한 듯 입을 열었다. “모든 게 잘 되었어요. 판막을 삽입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 진실한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순종적인 삶으로부터 온 깊고도 신실한 신앙을 행사한 것이 어째서 원하는 결과를 불러오지 못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교리와 성약 88:64; 강조체 추가] 가끔 시간이 지나도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이며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영원한 복리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9쪽.

리조카는 사흘 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사이 심장과 폐장의 부기가 가라앉았다. 수술로 절개된 부위는 얇은 막 하나로 봉해 두었다가, 며칠 뒤 재수술로 가슴과 장기를 완전히 봉합했다. 아이가 살아남으리라 기대한 의사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아이가 회복되리라 믿었다.

하나님만이 우리 리조카를 돌려줄 수 있었다. 아이는 날로 좋아졌다. 아이는 한 달 더 병원에 머물렀고 지금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려울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련은 우리 신앙을 강화하며 우리가 믿고 바라고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

글쓴이는 벨기에에 산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
가족 역사,
그리고 성전

사업!



18 37년 4월 6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린 엄숙한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결국, 가장 크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¹

거의 정확하게 7년
뒤인 1844년 4월 7일에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히브리서 11:40
참조]. 이는 인봉 권능이
우리의 손에 있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경륜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와 죽은
자를 인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²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죽은 자를 찾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조상을 찾는 일은 하나의 위대한 사업에서 상호보완하는 각 부분으로서, 이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며 정결하게 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부여하신 최대의 의무와 책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들이 후기 구원 사업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교 사업, 가족 역사 사업, 성전 사업은 서로 밀접하고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하나의 위대한 사업을 이루며,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에베소서 1:10)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후기의 놀라운 구원 사업에 대해 함께 숙고할 때 성신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과 신권 의식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죽은 조상을 찾는 일은 둘 다 신성하게 부여된 책임으로, 우리 마음과 신권 의식에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사업의 정수는 바로 합당한 신권 권세로 행해진 의식과 성약을 통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며,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표준 경전에서 1,000여 번 사용되는데, 이는 개인의 내적 느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 애정, 의도, 동기, 태도의 합집합인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며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주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복음과 관련된 기다란 “할 일” 목록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고 성실하게 완료 표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니며 우리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신앙을 통해 그분께 나아오고,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끝까지 견디도록 모든 사람에게 권유하는 데 있습니다.³ 우리는 단순히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 수를 늘리고 힘을 키우기 위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의 실재성,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주의 속죄 희생이 지닌 효력을 선포하라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모로나이서 10:30~33 참조) 권유하고, 마음에 “크나큰 변화”(앨마서 5:12~14 참조)를 경험하며, 성약을 아직 맺지 않은 필멸의 개인들에게 구원 의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기본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짓고 대리 의식을 하라고 명하신 목적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승영에 이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단지 개인 혹은 가족이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인류 가족에게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제공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가족 역사 탐구 및 성전 대리 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아직 성약을 맺지 않은 채 영의 세계에 있는 개인들을 축복하는 사업입니다.

신권 의식은 경건의 능력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나니”(교리와 성약 84:19~21).

이 성구들의 진지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은 반드시 먼저 침례의 관문을 지나 성신의 은사를 받은 다음, 계속하여 구주 및 그 속죄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성약과 의식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니파이후서 31장) 신권 의식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데]”(모로나이서 10:30~33 참조) 필수적입니다. 의식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 희생(앨마서 34:10~14 참조)을 통해 가능해진 모든 축복, 즉 경건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마음과 성약 및 신권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장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의미

이 신성한 교리는 우리의 교회 사업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우리는 간혹 개별적인 구원 사업의 영역과 관련 정책 및 절차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중 다수가 특정한 주님의 사업 분야에만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이와 같은 포괄적 구원 노력에 완전한 힘을 모으는 데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시는 반면, 우리는 이따금 이해력과 시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거나 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통계를 늘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접근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힐라맨서 3:35) 말미암아 오는 마음의 정화와 기쁨, 연속적인 개종, 영적 권능과 보호를 저해합니다. 단순히 복음과 관련된 기다란 “할 일” 목록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고 성실하게 완료 표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니며 우리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엘마서 5:14 참조)

둘째, 엘리야의 영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업에서 핵심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후기에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역설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성스러운 숲에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들과 대화했습니다. 이 시현으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베소서 1:9)가 도래하게 되었고, 조셉은 신회 및 지속적인 계시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약 3년 뒤인 1823년 9월 21일 저녁, 조셉이 드린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빛이 그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의 방이 “한낮보다 더 밝아지[게]”(조셉 스미스—역사 1:30) 되었습니다. 소년의 침대 곁에 나타난 한 존재는 소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그에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조셉 스미스—역사 1:33)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몰몬경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 후 모로나이는 흠정역 성경에서 사용된 표현과 조금 다르게

단지 개인 혹은 가족이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인류 가족에게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제공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전서의 말라기를 인용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조셉 스미스—역사 1:38~39)

모로나이가 어린 선지자 조셉에게 준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몰몬경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사도행전 3:21) 회복하실 때 엘리야가 하게 될 역할을 예언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복 도입부의 사건들은 신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밝혀 주고, 계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을 확고히 하며, 몰몬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구원과 승영의 사업을 예견했습니다.

이제 몰몬경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일과 엘리야의 영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해 봅시다.

몰몬경은 주님의 영과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개종시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회복의 경전은 우리 종교의 종석으로, 영혼을 구주께로 데려가는 일에서 필수적입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으로서, 세속적이며 냉소적으로 변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조상을 찾는
일은 하나의 위대한
사업에서 상호보완하는
각 부분으로서, 이
둘은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며 정결하게 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가는 세상에서 구속주의 신성함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몬경을 읽고 공부하며 물몬경의 참됨을 알리는 진정한 의도로 기도한다면,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은 “가족의 신성한 본질에 대해 증거하는 성신의 임재하심”⁵입니다. 이 신성한 영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조상과 친족들을 찾고 그들을 소중히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엘리야의 영은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 기사에는 여섯 개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lds.org/go/hearts1에서 이 원리를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담긴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한다.

주로 물몬경이 지닌 영적 힘을 통해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엘리야의 영을 통해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그 두 가지 강력한 결합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힘을 받고 신앙을 강화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을 견디고 더 깊이 개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담긴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한다.

원리

이제 저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을 돌이킬 때 생기는 영적인 힘에 관한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마음과 개종.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면

마음에 자각이 일어나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준비가 된다. 따라서 엘리야의 영은 개종에 도움을 준다.

이 원리를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담긴 세 번째 영상을 시청한다.

2. 마음과 활동 유지.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한 마음을 유지하고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엘리야의 영은 새로운 개종자의 활동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 원리를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담긴 네 번째 영상을 시청한다.

3. 마음과 재활동화.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한 후에 굳어 버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따라서 엘리야의 영은 재활동화에 필수적이다.

이 원리를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담긴 다섯 번째 영상을 시청한다.

4. 마음과 용감한 선교사들.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고 마음을 돌이킨 선교사는 더 깊이 개종하고 헌신하는, 용감한 종이 될 것이다.

이 원리를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담긴 여섯 번째 영상을 시청한다.

더 잘 준비된 선교사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과거처럼 진도를 통해 거두는 성공에만 의지해서 미래를 위한 진로와 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술과 도구로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의 통일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이,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 그것이 꼭 필요한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된

엘리야의 영은
 “가족의 신성한 본질에
 대해 증거하는 성신의
 임재하심”입니다.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업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거룩한 성약에, 그리고 신권 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에 초점을 둔 하나의 장엄한 사업입니다.

요약 및 간증

주님께서는 “내가 능히 나 스스로의 일을 행할 수 있[고]”(니파이후서 27:21) 또한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리와 성약 88:73)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봉사하는 지금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특별한 경륜의 시대가 지닌 영원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과,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에 그 영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후기에 성취해야 할 구원 사업은 광대하고, 거대하며, 필수 불가결하고, 긴급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살아가는 축복과 책임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된다]”(교리와 성약 82:3)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조상을 찾는 일은 우리 마음과 신권 의식에 관계된 두 가지 신성한 책임으로서, 이 둘은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며 정결하게 하려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자주 선교 사업, 성전 사업, 가족 역사 사업을 따로 구분하려 했던 그런

인위적인 경계선은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의 구원 사업입니다.⁶

우리는 구도자나 저활동 회원이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일에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이 하는 역할을 이해합니까? 개종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엘리야의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까? 회원과 선교사가 가르칠 사람을 찾는 수단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일어나는,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욱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성찬식, 혹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나 확인과 같은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함으로써 더 자주 경건의 능력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며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사업에서 여러분이 하는 봉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고, 명백하게 들으며, 늘 기억하기를 기원합니다. ■

2013년 6월 25일,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말씀에서 발췌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30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75쪽.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쪽 참조.
4. 에즈라 테프트 벤슨, “그리스도의 새 증인”,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7쪽.
5. 러셀 엠 넬슨, “새로운 추수의 시기”,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34쪽.
6. 스펜서 터블유 김블, “영원한 일 …… 위험을 무릅쓰리요”,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2쪽 참조.



가정

배움의 중심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가정에서 배우는 것을 뒷받침할 때,
복음 생활의 기초가 견고해진다.

“다 음 주 공과 내용에서 읽어야 할 부분 꼭 읽어 보고
오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 같지 않은가?
교회 공과 마지막에 교사들은 종종 그렇게
간청한다.

일요일 공과에 대한 예습은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일요일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마치 여러분의 학습과 연구의
주목적처럼 생각되지는 않는가?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활동, 프로그램, 가르침[은] …… 가정
중심적이고 교회는 그것을 지원[하는 곳이다.]”¹ 이 말은 우리의
교회 모임들이 진실로 개인과 가족의 배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감리 감독인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이
가르친 것처럼 “가르침과 배움의 일차적 장소는 가정”²이다.
가정이 배움과 가르침의 중심지가 될 때, 그 배움과 가르침은
개중으로 이끄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2014년 연례 보조 조직 훈련 모임,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침*의 메시지이며 이 내용은
annualtraining.lds.org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배당, 집회소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매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³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배우는
원리를 가정에서 매일 매 순간 적용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영적 피난처와 보호가 될 “학문의 집”(교리와 성약
88:119)의 견고한 기초가 놓이게 된다.





가정에서 배움

늘 즉각적으로 결과가 뒤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일상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순간들을 이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그러한 영향을 인식한 몇몇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평범한 순간들

“복음을 주제로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비공식적인 가르침을 전한 순간들이 정말 축복이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었지요. 또한, 하루에는 그런 공식적인 가르침의

순간들보다는 비공식적인 순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회들을 포착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장을 보면서 정직에 대해 가르쳐요. 아이들은 원리들을 적용하는 실례를 목격하면서

더 빨리 배움을 얻게 되죠.”

모나 빌라누바, 필리핀



lds.org/go/221014320에 있는 “일상적인 가르침의 힘” 영상에서 다른 예들을 찾아본다.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간식 시간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순간들 덕분에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식탁에 앉아 간식을 먹는 시간에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면 저런 행동을 했는데, 그때 기분이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간증을 전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들었던 기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아이들과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자주 이야기를 하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알리슨 프로스트, 그리스

통학 시간에 나누는 대화

“매일 아침에 저는 딸들을 버스로 학교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번은 말다툼하는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딸들은 얼른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말을 해 줄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대신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결혼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분간의 버스 통학 시간은 저희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마리오 로렌즈, 과테말라

[lds.org/go/231014320\(4:56~5:39\)](https://lds.org/go/231014320(4:56~5:39))에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침—가정” 영상에서 다른 예들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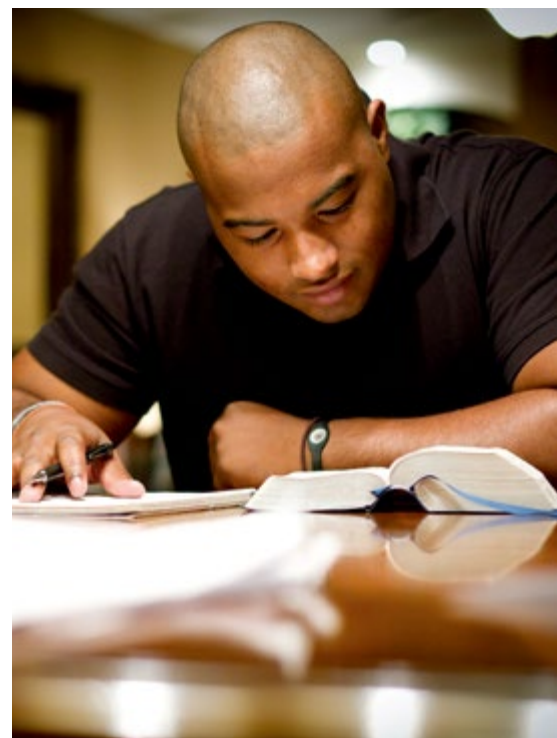




보살핌의 원

“아내와 저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차적인 책임이 저희에게 있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지도자들의 수고를 감사히 여기고, 최대한 그분들을 도우려 합니다. 저희 와드에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신경을 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고, 이들은 부모들이 가르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몇 번 모임을 했고, 청소년 지도자들과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종종 저희 아이들의 발전 상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발전 상황에 관해 자주 대화하면, 우리 모두 각각의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시 앤 아루무감, 남아프리카





그리스도는
언덕과
사람들의
가정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구주[는]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 그분의 성역의 대부분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교회 건물 안에서
가르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큰길과 샛길, 언덕과 해변가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가정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침—
가정”(2014년 보조 조직 훈련 동영상),
annualtraining.lds.org.

경전에서 찾는 힘

“경전 공부는 제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을 배워서 그분과 같이
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경전
공부를 하면서 더욱 풍성한 영을
느끼는데, 영은 저를 인도하여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어 사탄이 던지는
많은 유혹과 인생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인생에서 이런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임을
압니다.”

내이든 우드워드, 영국

교회에서 배움

모든 교사가 알아야 할 10가지 원리

가정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교회 공과 시간
역시 강화할 수 있다. 교사들이 다음 10가지 원리를 적용하면,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의 삶에 더 깊은 개종이 일어나도록 촉진하게 될 것이다.

1. 일차적인 교사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들과 협의하여 반원의 필요 사항을
파악한 후에 그에 따라 가르친다.
2. 영으로 준비하고 가르친다. 영이 주도하는 토론을 하고, 반원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질문과 학습 활동을 준비한다.
3. 공과가 아닌 사람을 가르친다.
4. 복음의 핵심 교리에 중점을 둔다.
5. 공과 내용을 다 다루기보다는 한두 가지 원리를 깊이 있게 가르친다.
6. 모든 사람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영을 불러온다.(교리와 성약 88:122 참조)
7. 실천하도록 강하게 권유한다. 단순히 집에 가서 읽어올 과제만이 아니라 실천해
볼 무언가를 권유한다.
8. 공과 마지막, 또는 영의 속삭임을 받을 때마다 교리에 관한 간증을 전한다.
9. 복음대로 생활하고,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운다.”(교리와 성약 93:43~44, 50
참조)
10. 일상의 비공식적인 순간들에도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할 방법을 찾는다.

annualtraining.lds.org에서 연례 보조 조직 훈련 모임을 시청하여 이 원리들에 대해 더
알아본다.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4.
2. 게리 이 스티븐슨, “와드 평의회—우리는 이것에 모두 함께 합니다”(2014 보조 조직 훈련 동영상),
annualtraining.lds.org.
3. 제프리 알 홀런드,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침—가정”(2014년 보조 조직 훈련 동영상), annualtraining.lds.org.

모든 가정을 위한 자료

annualtraining.lds.org에 나오는
2014년 연례 보조 조직 훈련 동영상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 자신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자신의 가족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 와드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가오는 스테이크

지도자 모임, 와드의 다섯째 일요일
토론, 또는 평의회 모임에서 이
훈련을 시청할 수 있다.

- 보조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자료 중에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테이크 또는 와드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조직용 훈련도 있다.



이 동영상들과 관련된
토론 문서들은
annualtraining.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불안과 절망을
없애 달라고 간구하긴 했지만,
그런 역경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존 워너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 6개월 후에 공황발작, 불안감,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다. 그런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몸이 쇠약해질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나는 집중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직장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으면 불안감이 밀려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머릿속은 마구 달음질을 치고, 가슴은 격심하게 고동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런 현상은 대체로 며칠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매일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소파에 풀썩 쓰러져 버리기 일쑤였다. 그리고 밤을 도둑맞은 기분으로 다음 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했다.

새로운 직장을 얻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이런 감정들은 몇 개월간 지속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잘 보내고

아내와 딸이 있는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괴로움의 끝이 보이지 않았기에 이따금 포기하고도 싶었다. 많은 날을 눈물 젖은 눈으로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련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 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기도드렸다.

영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영이 나를 절망에서 들어 올려 줄 때면, 그다음 기도를 할 때까지만이라도 계속해 나갈 자신감이 생겼다. 식사 기도나 밤에 자기 전에 가볍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와는 다르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했다. 결국 나는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파도 위에 던져진 채

불안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나는 “큰 깊음”(이더서 2:25)을 건넌 야렛인의 기사를 다시 읽었다. 그들이 거룻배로 들어갔을 때 느꼈을 불안과 기대를 나는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험한 여행이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더서 2:15)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여행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부는 맹렬한 바람을 일으키시매, 그로 인해 그들이 바람 앞에서 바다 물결 위에 요동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 위에 부서지는 산 같은 파도와, 또한 맹렬한 바람이 일으키는 크고 무서운 폭풍으로 인하여 여러 번 바다 깊이 묻혀졌더라.

…… 그들이 많은 물에 둘러싸였을 때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물 위로 이끌어 내셨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물 위에 있는 동안 바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불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바람 앞에 밀려 나아갔더라.”(이더서 6:5~8)

이 구절들이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왔다. 나만의 거룻배 속에 있는 나를 불안의 바람이 때리고 우울증의 파도가 덮쳐 절망 속에 깊이 묻고 있었다. 내가 그런 것들에 “둘러싸였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수면을 뚫고 나올 수 있었지만, 곧 다시 파묻히게 되었다.

나는 8절을 다시 읽었다. “바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불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바람 앞에 밀려 나아갔더라.”(강조체 추가) 이를 읽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산 같은 파도를 일으켜 거룻배를 물 속에 잠기게 하던 바로 그 바람이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을 하는 야렛인에게는 축복이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이 성구들은 삶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바꿔 놓았다. 불안과 우울증 덕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바람과 파도가 없었다면 결코 내가 지금 알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못했을 것이며, 야렛인도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경험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불안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일은 이제 없어졌고, 나를 파묻는 우울증의 파도도 이제는 그쳤다. 하지만 그 폭풍우가 다시 몰아친다면 나는 주님을 부를 것이고, 고요한 바다는 거룻배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지만 폭풍우가 치는 바다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감사해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 정서적 시련에 처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

세월 속에 입증된 예배 방식을 충실하게 따르며 삶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영적 복지에 대한 열의를 지닌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신권 축복을 구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주 성찬을 취하고, 온전케 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약속을 붙들십시오. ……

망가진 정신도 부러진 뼈나 상한 마음이 낫듯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고치시는 동안 우리는 관대하고, 개인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며, 친절함 태도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0~42쪽.



칠레에서

일어난 개종과 변화

첫 번째 침례가 나온 것은 1956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성전 1곳, 선교부 9개, 스테이크 74개가 있고, 회원 수는 거의 60만 명에 이른다.

네스토르 쿠르벨로
교회 역사 고문, 남아메리카 남 지역

58년간의 역사를 통해 칠레의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들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행로를 바꾸는 역량을 보여 주었다. 이런 정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칠레 지역의 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오늘날 칠레의 회원 수는 거의 60만 명에 이르며, 칠레 국민 30명 중 1명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다.¹

칠레를 찾아온 한 명의 사도

1851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팔리 피 프랫(1807~1857) 장로가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발파라이소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와 동반자들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고 재정 자원도 거의 전무한 데다 당시 칠레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였기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다.

이 기사에 실린 다수의 사진은 네스토르 쿠르벨로가 제공했다. 왼쪽 상단 사진: FILIPETRAZAO/STOCK/THINKSTOCK; 하단 사진: KAVRAM/STOCK/THINKSTOCK



교회가 후원한 학교인 콜레지오 아 디 팔메르(Colegio A. D. Palmer)의 교사들과 4학년 학생들, 1966년경.

프랫 장로는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다. “물문경과 저렴한 출판물 몇 개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고대인들의 기도와 신앙이 담긴 기사, 이스라엘 집의 회복을 위해 그들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담긴 기사가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출판되고 거기에 살아 있는 신권이 함께하면 이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²

교회 설립

프랫 장로의 초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칠레에는 10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영속적인 교회 조직이 세워지게 된다. 1956년에 아르헨티나 선교부에서는 종교적인 포용력이 좀 더 커진 칠레로 조셉 벤틀리와 베를레 알레드를 파견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 이 선교사들은 산티아고에서 포터링햄 가족의 지원을 받았다. 파나마에서 이주해 온 이 회원들은 선교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1956년 11월 25일에 산티아고에 있는 어느 컨트리클럽의

수영장에서 칠레 땅의 첫 번째 침례가 집행되었다. 알레드 장로는 그 일을 이렇게 회고한다. “우리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컨트리클럽으로 가서 기도와 간단한 말씀으로 침례식을 했다. 나는 가르시아 형제와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 형제에게 먼저 침례를 준 후, 다른 여덟 사람에게도 침례를 주었다.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모두가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 …… 그들은 칠레 교회의 개척자들이 될 사람들이었다. 가라아스 가족, 살다노스 가족, 란자로티 자매까지. 나는 그들 모두가 죽는 날까지 충실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믿는다.”³

칠레의 지도자들

1959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이 칠레를 방문하여 현지 지도력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현지 지도자 중 한 사람은 카를로스 시푸엔테스인데, 그는 선교부 회장인 로버트 버튼의 보좌였다. 나중에 지역 칠십인과 성전 회장이 된 줄리오 자라밀로 장로는 그와 관련된 경험을 이렇게 언급했다. “시푸엔테스 형제님을

처음으로 본 것은 내가 침례를 받은 후 한 신권 모임에 초대되어 갔을 때였다. 모임이 시작되자 그 형제님이 연단에 올라오셨는데 내 눈에 보인 것은 오직 더럽고 새까만 그분의 손톱뿐이었다. 나는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선교부 회장을 보좌하며 모임 사회를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형제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나 이내 그분의 영을 느끼면서 다른 모든 것은 잊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한 말로 심오한 개념들을 전달해 주었다. 그분은 중장비 기계를 다루는 기계공으로, 토요일에는 늦게까지 일을 한 후에 손을 깨끗이 씻지만 그분의 가게에 있는 세제로는 기름기를 모두 제거할

이렇게 말했다. "칠레의 학교들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학업과 영적 훈련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⁵

칠레에서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처음에 학생들은 주1회 수업을 하는 가정 학습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수업이 더 자주 열리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축복이 되었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는 데 기여했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에두아르도 아얄라 장로는 첫 세미나리 교사 중 한 사람이었으며 나중에는

1851년: 팔리 피 프렛 장로가 말파라이소로 갔지만 칠레에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다.

▶ 1926년: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어느 간증 모임에서 미래 남미에 대한 교회의 성장과 힘에 관하여 예언했다.



▶ 1956년: 첫 번째 선교사들인 조셉 시벤틀리와 베를레 엠알레드가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첫 번째 침례가 나왔다.



수가 없었다. 그때 그곳에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그보다는 그 사람이 진실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⁴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숙련된 현지 지도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 및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칠레 지역의 교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예배당 건축과 더불어 교회 학교,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 설립도 포함되어 있었다.

1964년 3월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두 곳이 창설되었다. 최종으로 대어섯 곳의 학교가 개교했고, 등록된 학생 수는 2,600명 이상에 달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공립학교가 더 널리 분포되면서 교회는 칠레에서 운영하던 학교들을 폐쇄하기로 공표한다.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고 현재는 칠레 교회 역사 고문인 에두아르도 에이 라마르티네 장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테무코 종교 교육원은 칠레에 있는 50개의 종교 교육원 중 하나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1996년, 산티아고에서 열린 대회에서 48,000명의 칠레 후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칠레의 교회 교육 기구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당시에 이곳 젊은이들을 택하셨는데, 그중 다수는 귀환 선교사이자 가정을 잘 꾸린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다. …… 우리 나라에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던 시기에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은 나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었다. 교육 기구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⁶

첫 번째 스테이크 조직

1972년 11월 19일,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장로는 칠레 산티아고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카를로스 시푸엔테스를 회장으로 지명했다.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칠레 성도들의 성품과 기꺼이 선지자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 힝클리 장로는 스테이크 조직 5~6개월 전에 칠레에 도착했다. 하지만 접견을 실시한 후에 스테이크 조직을 연기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일부 회원들은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힝클리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6개월 후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접견을 하면서 저는 만개한 신앙의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었기에 스테이크는 조직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⁷

변방의 개척자들

오늘날 칠레의 최북단 도시인 아리카에는 두 개의 스테이크가 있다. 아리카의 초대 개척자인 글라디스 베나비데스와 후안 베나비데스의 이야기는 개척자 정신과 칠레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스러운 영향력이 함께했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베나비데스 형제는 1961년에 그가 걸어가던 길로 바람에 날려온 종이 몇 장 덕분에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종이들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선정본(Reader's Digest Selections)으로, 거기에는 ‘몰몬’들의

삶과 믿음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기사가 실려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중병에 걸려 산티아고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누나 집을 방문했는데, 누님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더군요. 누님은 저를 어느 특별 대회에 초대했어요. 개회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기도 말을 따라했는데, 온 몸으로 큰 기쁨을 느꼈고 성령의 영향력을 인식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선교사들이 저를 방문 역원으로 오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스라 태프트

회원들은 식량 및 약품 부족, 선교사들에 대한 잦은 괴롭힘, 매체의 부정적인 보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73년에는 재정적, 사회적 위기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고, 그런 상황은 1990년까지 지속되었다. 오늘날 칠레는 왕성하게 성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 20년의 세월은 회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우리 교회가 미국 정부의 이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여 집회소와 회원들을 공격했다. 당시 스테이크



“열두 살 나이에 복음 메시지를 접하게 된 저는 곧바로 그것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때로부터 4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한 수많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칠레에 대한 선지자들의 전망이 더욱 폭넓어짐에 따라 주님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¹²

조지 에프 제볼로스 장로, 칠레 출신의 칠십인

1957년: 칠레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1960년: 콘셉시온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교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했다.

▶ 1961년: 칠레 선교부가 조직되고 아사엘 펠베르트 팔메르가 선교부 회장이 되었다.



1962년: 산티아고에서 후기 성도 집회소를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벤슨(1899~1994) 장로님에게로 데려가 악수를 하게 해 주었어요.”

베나비데스 형제는 아리카로 돌아가 당시 여자 친구이자 현재의 아내인 글라디스 아길라르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며칠 후, 글라디스는 집 옆을 지나가는 두 명의 선교사를 보게 되었다. 베나비데스 형제는 “우린 곧바로 그들을 찾아 나섰어요.”라고 말했다. “1961년 7월 1일에 우리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저희 자녀와 손자 손녀들도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자료를 돌풍에 실어서 제 손에 쥐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⁸

힘든 시기를 지나며

1970년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살바도르 아옌데는 마르크스주의 정부를 수립했다. 교회

회장이었던 아얄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주 총관리 역원들과 모임을 했으며, 그분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발휘하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옳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회원들은 모임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⁹

재정적 어려움과 정치적 대립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칠레 사회에 분열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1970년과 1985년 사이에 칠레의 회원 수는 15,728명에서 169,361명으로 증가했다.

산티아고 성전

1980년에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 칠레 산티아고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공표를 듣게 된다.

성전 부지를 헌납하러 온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사실 몸이 무척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참석함으로써 1959년부터 함께 일해 온 남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헌납식에서 김볼 자매의 통역을 맡았던 아드리아나 게라 데 세폴베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한 그 자그마한 선지자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려서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내가 살아 있는 선지자 곁에 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주님의 대변자들

위해 돕고, 수백 개의 와드와 수십 개의 스테이크를 재조직 및 통폐합하는 일을 감독했다. 이런 재조직과 훈련이 필요했던 이유는 칠레에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지도력에 힘입어 단위 조직들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칠레의 교회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외에도 홀랜드 장로는 칠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관계를 확립했다. 지역 회장단 보좌였던

1972년: 칠레의 첫 스테이크가 산티아고에서 조직되었다.

1977년: 산티아고에서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과 그 밖의 총관리 역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지역 대회가 열렸다.



◀ 1981년: 산티아고에 선교사 훈련원이 세워졌다.



◀ 1983년: 고든 비항클리 회장이 칠레 산티아고 성전을 헌납했다.



지상의 이곳에, 바로 내 조국에서 뵈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¹⁰

성전은 1983년에 헌납되어 남미에서 두 번째이자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 최초의 성전이 되었다.



칠레에서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2002년 8월에 제일회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두 명에게 두 개의 교회 지역을 감리하도록 지명했다. 이에 따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필리핀을,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칠레를 맡게 되었다. 홀랜드 장로가 칠레에서 성역을 행하고 감화를 준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 영향력은 수 세대에 걸쳐 전해질 것이다.

홀랜드 장로가 역점을 둔 사항은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훈련하기



2010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칠레 청소년 및 성인들이 '물론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생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칠레의 교회 성장



칠레의 교회

와드 및 지부: 622개
 스테이크: 74개
 선교부: 9개
 성전: 1곳(1곳 더 발표됨.)
 가족 역사 센터: 99개



◀ 1990년: 칠레 출신의 에두아르도 아얄라 장로가 칠십인 제1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 2002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칠레 지역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 2008년: 칠레 출신의 조지 에프 제볼로즈 장로가 칠십인 제1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2009년: 칠레 콘셉시온 성전이 발표되었다.

칠십인의 칼 비 프렛 장로는 이 중요한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홀런드 장로님은 리카르도 라고스[칠레 대통령]와 영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다. 그분들은 몇몇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실행했다. 홀런드 장로님은 교황 대사[가톨릭교의 고위층 역원] 및 그 외 칠레의 주요 인사들과도 친분을 맺었다.”¹¹

미래에 대한 믿음

팔리 피 프렛 장로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노력, 산티아고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사들의 희생, 카를로스 시푸엔테스 같은 지도자들과 그 밖의 초기 칠레 개척자들의 헌신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교회에 들어온 수십만 명의 신앙과 헌신에 어우러져서 칠레의 교회를 세우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오늘날 칠레에는 성전 1곳(1곳이 더 발표되었음), 선교사 훈련원 1곳, 선교부 9곳, 스테이크 74개가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영적 사업에 임하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

주

1. Deseret News 2013 Church Almanac, 454 참조.
2.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Soct Facer Proctor and Maurine Jensen Proctor (2000), 504.
3. Verle Allred, Néstor Curbelo, *LDS in South America: Chile Sur*, vol. 1 (2008), 6.
4. Julio Jaramillo, Néstor Curbelo, *LDS in South America: Chile*, vol. 1 (2006), 4-5.
5. 에두아르도 아드리안 라마르티네 아길라, 글쓴이가 입수한 역사 기록 요약본, 2013년 11월.
6. Eduardo Ayala, Néstor Curbelo, *LDS in South America: Chile*, vol. 1 (2006), 44, 45.
7. Gordon B. Hinckley, Rodolfo Acevedo A., *Alturas Sagradas: Templo de Santiago de Chile*, 100.
8. Néstor Curbelo, “Blossoming in the Desert,” *Church News*, Nov. 9, 1996, 8-9.
9. Eduardo Ayala, Néstor Curbelo, *LDS in South America: Chile*, vol. 1 (2006), 33.
10. Adriana Guerra de Sepúlveda, Néstor Curbelo, *LDS in South America: Chile* (2006), 16.
11. Carl B. Pratt, Néstor Curbelo, *Colombia: investigación histórica*, vol. 1 (2010), 16.
12. 조지 에프 제볼로즈, 글쓴이에게 보낸 서신, 2014년 1월.

단정함을 선택하는 용기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정결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딸들이 단정함을 선택할 용기를 갖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단 정함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치마선, 목선, 또는 티셔츠가 왜 그렇게 주님께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다섯 딸과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단정함은 이따금 저희 가정에서 제기되는 대화 주제이기도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리를 가르치고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단정함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단정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모범은 단정함의 축복을 행복한 방식으로 드러내 줄 것입니다.

단정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정함은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우리 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입니다. 신앙에 충실함 책자에는 단정함에 대한 정의가 “복장, 몸가짐, 언어 및 행동에서의 겸손하고 고상한 태도”라고 나옵니다. 단정함은 허영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단정한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얻거나 자신의 실제 또는 가상의 성취나 매력적인 특성에 이목을 끌겠다고 자신의 몸이나 행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정함의 원리는 남성과 여성, 아들과 딸들 모두에게 적용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단정함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짧은 치마를 입거나 “무지개 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화려한 고리를 많이”² 라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표준에 충실히 남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개인에 대한 연민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모범을 보입니다.

단정한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거룩한 곳에 서기를 선택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다음 성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우리의 몸은 우리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성전에 우리와 함께하도록 성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단정하게 행동할 때, 그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 외모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 단정함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므로 육체는 의로운 목적으로도, 불의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몸은 신성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이들에게 육신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은 모반 행위이며(모사이야서 2:36~37 참조)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³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도록(엘마서 26:3 참조) 우리 몸을 돌보고 보호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구주께서 내 옆에 서신다면 이 옷차림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편안할까?’

복장과 외모, 생각과 행동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이 맺은 성약으로 축복과 보호를 받고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에 속할 것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장은 단정하고 생각은 순수하며 언어는 깨끗할 것입니다.”⁴

단정함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성약의 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 원리입니다. 복장과 외모, 생각과 행동의 단정함은 우리가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필멸의 상태인 우리에게 성약의 덮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성전 가먼트입니다.

단정함에 따른 축복은 무엇일까요?

순결하고 정결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단정함을 선택할 용기를 갖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우리 몸을 이용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우리 몸을 사용하는 모습인가요?

우리는 생각과 말과 외모와 행동의 단정함을 통해, 능력과 품위를 갖추게 해 주는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정함은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가능하게 합니다. 헤일즈 장로님은 “[단정함]은 영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교리와 성약 121:26)를 거스르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소중하고 강력한 영적 은사를 지니면 성신과 성스러운 동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 …… 이로써 너는 알게 되리니, 곧 의로운 것에 속한 것으로 네가 받을 줄을 내 안에서 믿는 신앙으로써 내게 원하는 것이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13~14) 지식과 지혜와 간증, 기쁨과 평안과 행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단정하게 생활하도록, 그리고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권유할 때 그들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축복들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유행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들이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청남과 청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영에 민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영을 가까이 느끼며 생활하면, 세상의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그들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 줄 성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인도와 보호와 위안을 얻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곁에서 확신시켜 주고 모범으로 보여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2. 단정한 외모와 행동을 하면 세상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점을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기만하는 무기 중 하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영에 민감하도록 청남과 청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영을 가까이 느끼며 생활하면, 세상의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성은 구식이라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입니다. 단정함은 그러한 사악한 영향력을 막아 주는 방어물이자 순결과 정결의 보호막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에 나오는 다음 말을 들어 보십시오. “결혼 전에는 ……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마십시오.”⁶ 단정하지 못한 외모와 행동은 이따금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장벽을 허물고 순결의 법을 어기도록 더 큰 유혹을 부추길 것입니다.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단정함]은 생각과 행동 모두에 있어 순수함과 순결함의 중심에 있습니다. [단정함]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정을 인도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됩니다.”⁷ 우리의 청남과 청녀들이 그들 내부에 있는 생식의 힘을 지키고 보호할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단정함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행하는 사랑의 표현을 결혼할 때까지 성스럽게 지키고 보호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3. 단정함은 우리가 “어느 때에나 …… 하나님의 증인이 [될]”(모사이야서 18:9) 수 있게 해 줍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 들 빛이니”(제3니파이 18:24) 우리는 세상을 향해 등대가 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기쁨을 드러내고, 의를 가르치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는 성스러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단정하고 순수하며 계명을 지킬 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됩니다. 단정함은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증거합니다.

성신으로 인도받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이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온의 모든 아들딸에게 단정함의 교리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이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따르기로 성약하고 우리 삶에서 속죄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자 소망할 때 중요한 옷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 또한 시온의 딸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게 하라.”(모로나이서 10:31; 강조체 추가)

아름다운 옷은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이들이 입은 의의 겹옷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순결함으로 참으로 의의 겹옷으로 옷 입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니파이후서 9:14)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

2013년 5월 2일,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53쪽.
2. 제프리 알 홀런드, “예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시네”,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2년 9월 9일, cesdevotionals.lds.org.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43쪽.
4.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야호나, 2001년 1월호, 8~9쪽 참조.
5. 로버트 디 헤일즈, “정숙함: 주님에 대한 경건”, 리야호나, 2008년 8월호, 18쪽.
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36쪽.
7. 로버트 디 헤일즈, 리야호나, 2008년 8월호, 19쪽.

북쪽 바다에서 드린 기도

내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 우리는 노르웨이 남부에 있는 안다벨뢰이라고 부르는 섬에 살았다. 아버지는 안다벨뢰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하셨으며, 나는 그곳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까지 나는 어부였으며 배를 모는 일에 무척 능숙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해상 택시업을 맡기셨다.

1941년 어느 날, 플레케피오르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북쪽으로 데려가 달라고 연락을 해 왔다. 들어 보니, 배로 약 두 시간 걸리는 곳에 사는 여성이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호프만 선생님은 그 여성을 치료해야 한다며

자신을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부모님은 북쪽 바다에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걱정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여쭙 보기로 결정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미터짜리 어선인 트라이그 호를 서서히 바닷물 속으로 움직여 나갈 때, 날씨는 나빴고 파도는 크게 출렁였다. 호프만 선생님을 태운 후, 나는 협만을 지나 망망대해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노르웨이 남부의 암벽 해안에 위치한 리스타 북쪽 지역으로 가야 했다. 그곳은 폭풍우와 난파로 유명했다.

나는 키를 잡고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 암벽으로 된 어귀에 다다랐는데, 목적

지점까지는 약 12미터가 남아 있었다. 집채 만한 파도가 어귀로 몰려와 암벽에 부딪히고 있었기에 나는 배를 몰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호프만 선생님은 폭풍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내게 물었다. “기도를 해야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멘 하고 말하자마자 분명한 응답이 왔다. 한 어부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다. 그는 바로 이 지역에서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치는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해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는 몰려오는 파도 속에서 한



가지 반복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엄청나게 큰 파도가 세 차례 밀려온 후에 잔잔한 상태가 짧게 뒤따르는 것이었다. 그 시간은 어귀로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고기를 잡았지만 파도의 반복적인 현상을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배를 어귀 앞쪽으로 몰고 가서 세 차례의 큰 파도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아나나 다를까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졌다. 나는 해안 쪽으로 부드럽게 흐르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가로질러서 호프만 선생님을 무사히 물에 내려 드렸다. 선생님은 서둘러

파도가 너무
높아서 나는
배를 어귀로 몰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환자에게로 달려갔고, 나는 배 안에서 기다리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한 시간쯤 후에 돌아온 호프만 선생님은 “우리가 그녀의 목숨을 살렸어!” 하고 외쳤다.

그 소식과 좋아진 날씨에 안도하며 나는 아무런 사고 없이 배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나는 안다. ■
올라프 틀리프 쟈슨, 미국 유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테 네시 멤피스 성전이 헌납되는 동안 나는 해의 왕국실 구석에 있는 오르간 옆에 앉아 있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제일회장단 일원으로 봉사하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이 당시에 성전을 헌납하러 오셨었다. 그분과 다른 몇몇 지도자들이 마이크 뒤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교회의 현지 합창단이 줄지어 들어와 그분들 뒤에 섰다.

내가 방문 교육을 하는 한 젊은 여성도 합창단에 속해 있었다. 모임 내내 나는 그녀가 바라 왔던 것을 그곳에서 받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주님과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해 그날 성전 헌납식에 온 것이라고 내게 털어놓았었다. 그녀는 과거에 중대한 죄를 지었으며,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웠고 그

합창단에서 노래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다.

나는 파우스트 회장이 제일회장단에 계시는 주님의 대표자로서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분을 응시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또 그분이 어떻게 뭔가를 하실 수 있겠는가? 모임이 끝나면 그분은 들어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해의 왕국실을 나가실 것이고 아무런 소개도, 악수도, 대화도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바쁘고 여행 일정도 많다는 것쯤은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기도드렸다.

파우스트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잠시 나를 바라보셨고 그분 눈썹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모임이 끝나자 그분의 용모는 행복으로 빛을 발했다.

그분은 다시금 나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시며 한쪽 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으셨다. 그분의 손은 그녀를 지목했다. 그런 후 그분은 단호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파우스트 회장의 손짓은 작고 단순했지만 매우 강렬했다. 내가 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성신께서 회장을 통해서 전해 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성신이 아니라면 그렇게 강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몇 마디가 그녀에게 축복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세세한 것까지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것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진다]”(엘마서 37:6)는 신앙을 오랫동안 지탱하게 해 준 버팀목이 되었다. ■

엘리스 빅토리아 웨스턴-셔우드, 미국 아칸소

내가 아이들의 기도를 들었노라

병 적 우울증이라고 하면 내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지 12년 만에 그 병이 다시 찾아왔다.

무서웠고 마음이 괴로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면서 그 시련을 헤쳐 나갈 힘을 달라고 기도드렸다. 또한 지난번처럼 우울증이 5년이나 지속되지는 않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남편과 나는 이남 일녀로 삼 남매를 두었고,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열세 명의 손자 손녀를 안겨 주었다. 딸은 내가 처한 절망을 알고서 가족이 하루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로 계획했다. 한 살에서 열 살에 이르는 모든 손자 손녀는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했으며, 그중 침례를 받은 세 명은 금식도 함께 하고 싶어 했다. 남편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나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우울증 증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

한 살에서 열 살에 이르는 모든 손자 손녀는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했으며, 그중 침례를 받은 세 명은 금식도 함께 하고 싶어 했다.

같았다. 그다음 날은 더 호전되었다. 닷새째 되는 날에는 우울증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날 저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어떤 음성이 내 영혼에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이들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겸손과 신앙과 사랑이 담긴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3~4).

나는 손자 손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해 준 것에 고마움을 전했다. 내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도 말해 주었다.

나는 손자 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할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이들의 기도를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신 때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아이들의 간증을 강화하고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조이 크로마, 미국 캘리포니아



상당히 매력적인 독약

현 관문을 열고 신문을 집으려고 하는데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불개미들이 잔디밭과 보도의 틈새로 올라와 밤사이에 불그스레한 흙더미를 쌓아 놓은 것이다.

남편과 나는 미국 텍사스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 개미들이 색깔이 아니라 물어 뜯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톡 쏘는 통증 때문에 불개미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살충제를 보관해 둔 차고로 향했다. 그리고는 살충제에 부착된 사용법을 읽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불개미들은 [이 살충제에] 상당한 매력을 느낀다. 불개미들은 이 살충제를 자신들의 흙더미로 가져가서 여왕개미에게 먹일 것이며, 개미들은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용법에는 흙더미와 그 둘레에 과립 살충제를 약간 뿌리면 나머지 일은 개미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나는 회의적이었다. 나는 단 하룻밤 사이에 높다란 흙더미를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불개미는 꽤 영리하단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미들이 이 변장을 한 독약에 속아 넘어갈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어쨌든 나는 그것을 뿌렸다.

잠시 후, 흙더미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몸을 숙여 그 소동을 지켜보았다. 개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열중해 있었다. 조그마한 집게발로

하얀색 과립 살충제를 들어 날랐고, 서둘러 독약을 자신들의 흙더미 속으로 가져가느라 서로 부딪히기까지 했다.

나는 소름끼치도록 놀라워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개미들은 가까이 독약을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그 말은 분명 과장이 아니었다. 어쨌든 그 살충제 회사는 유해한 것을 매우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나는 유해한 것이 어떻게 좋게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보다 더 충격적인 예를 본 적이 없다. 그걸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탄이 내 집 주변에 위장된 독약을 뿌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는 그것을 내 집안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계속 막을 수 있을까?

그러자 좋아하는 성구 하나가 떠올랐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물론은 우리가 그 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를 “완전한 지식으로 알”(모로나에서 7:16)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운한 개미들을 지켜보면서 남편과 내가 어떤 것을 우리 가정에 들일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가슴

가득히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도 독약을 발견할 때 그것이 독약임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곳에 었드린 채 개미들이 살충제의 마지막 알갱이까지 모두 흙더미 속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내 가정에 독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

앨리스 엘 랜들, 미국 유타

사용법에는 흙더미와 그 둘레에 과립 살충제를 약간 뿌리면 나머지 일은 개미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라

많은 사람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을 위해 굳건히 일어서야 한다. 다음은 자신의 믿음을 수호한 청년 성인들의 간증이다. 그들은 논쟁을 하거나 분노 또는 불친절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용기와 정중함”¹을 보여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타인을 강화하게 되었다.

(제3니파이 12:44~45 참조)





동생은 샴페인을 거절했다

프랑스에서는 군복무가 의무이다. 내 동생 로이크는 스무 살 때, 종위가 되기 위해 예비 장교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학교를 졸업할 무렵, 새로 임명된 장교들을 위한 선서식이 있었다. 각자 차례대로 돌아가며 연대 슬로건을 암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후에는 장미가 들어 있는 샴페인 잔을 완전히 들이키고 장미까지 모두 먹어야 한다. 이 전통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이 전통에 참가하지 않은 장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로이크는 연대장에게 자신의 종교에서는 음주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을 면제해 달라는 로이크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이 흘렀다. 연대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로이크에게 샴페인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대신,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킨 것을 치하하면서 이런 신실한 사람을 자신의 연대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들은 샴페인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으며, 로이크는 선서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피에르 안티안,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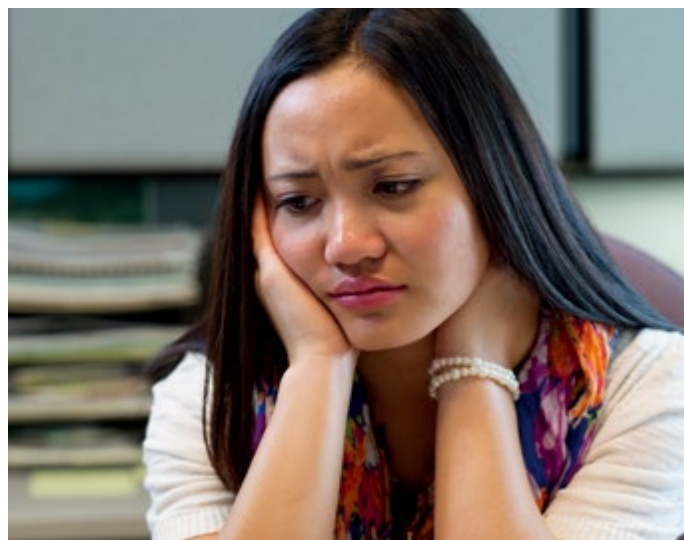
나는 난잡한 파티에 초대받았다

언니 그레이스와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몇몇 후기 성도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했다. 회사 간부들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언니가 약혼을 하자 사장님은 예비신부를 위해 깜짝 축하파티를 계획했다. 나는 언니가 우리의 표준을 지키기를 바랐지만, 언니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술과 남자 댄서와 음란한 비디오를 주문했다. 예비신부 축하파티가 있기 전에 나는 사장님에게 우리의 표준을 알려 주라는 성신의 속삭임을 느꼈다. 나는 청녀 메달을 움켜쥐며 청녀 시절,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을 떠올렸다. 나의 믿음을 수호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간구했다. 나는 사장님에게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서 사장님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나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었다.

파티가 시작되자 사장님은 나에게 말을 걸지도,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댄서와 비디오는 취소해 주었다.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사장님은 전처럼 나와 이야기를 하거나 웃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편안함을 느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사장님과의 예전처럼 지내게 되었다. 나는 내가 나의 믿음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

레미 라비타그, 필리핀 카가안벨리



나는 수업 중에 불쾌한 말을 들었다

나는 열여덟 살쯤 되었을 때 재봉반 수업을 들었다. 어느 날 나에게서 약간 떨어진 자리에 있던 세 명의 여자아이들이 불쾌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그 말을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내 표준을 수호하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결국 나는 최대한 상냥하게 “미안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말아 줄래?” 하고 말했다.

그중 몸집이 가장 큰 여자아이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하고 싶은 말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렇게 꼭 나쁜 말을 섞어서 말해야 되겠니? 듣는 사람 기분이 상하잖아.” 내가 말했다.

그 아이는 “그럼 안 들으면 되잖아.”라며 쏘아붙였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니?”라고 말했다.

“견뎌 내.” 그 아이의 대답이었다.

나는 포기했다. 그 여자아이들에게 실망했지만 나 자신에게 더더욱 실망했다. 적대적인 어투로 대항한 내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그 여자아이들은 여전히 욕설을 내뿜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화가 나 있었다.

마음이 진정된 후, 나는 그 여자아이들이 재봉틀 때문에 공공대는 모습을 보았다. 나도 전에 같은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몸집이 가장 큰 그 여자아이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 아이가 말했다. “애, 아간 미안했다.” 그 아이가 사과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말했다. “나도 미안해.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내 재봉틀로 돌아왔고 욕설은 더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말로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친절과 봉사로는 가능하다는 걸 배웠다.

케이티 파이크, 미국 유타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옹호했다

나는 열아홉 살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삼 형제 중 둘째인 나는 우리 집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였다. 침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을 느끼게 되었다. 1년 후, 영은 나에게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탐탁해하지 않으셨다. 할 수 없이 1년을 더 미루었지만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 해에 나는 경전을 공부하고, 돈을 저축하고, 지원서를 준비하고, 모든 건강검진을 받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이행하고, 주님께 봉사했다. 오래지 않아 나는 브라질 캄피나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셨다. 나는 금식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두려움을 말씀드렸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해 주셨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내가 떠나기 전 토요일에 친구들이 나를 위해 마련해 준 송별회에 참석하셨다. 그리고 월요일에 나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다. 선교 사업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어머니는 모자 관계를 끊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내가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나를 껴안아 주셨다. 나는 선교사 봉사가 단순한 의무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특권이자 놀라운 성장과 배움의 시간이다.

클레이슨 웰링톤 아모림 브리토, 브라질 파라이바



나는 하나님에 대해 간증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한 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현실”은 이렇다고 공언하며 현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친구들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지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남아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학교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수라면, 그 소수 중 후기 성도는 단 몇 명뿐일 테고, 그렇다면 내가 남아서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칭 무신론자인 생물학 교수님은 창조주에 대한 아무런 믿음 없이 과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식이 더욱 확고해졌다. 다른 학생들은 그런 개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토론은 격렬해졌다. 나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의견을 말할 시간이 왔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이들에게 박수 갈채나 고함, 야유를 보내는 것은 보통으로 있는 일이었다. 나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반대편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저에게 분명히 이치에 맞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나의 믿음을 옹호할 때 어떤 야유도 결코 받은 적이 없다. 그 후로 나는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했다. 학생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몇몇 학교 직책에 선출되기도 했다.

나는 단 한 번일지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미래의 결정들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빈세 에이 몰레잔 이세, 필리핀 민다나오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제자 됨의 대가와 축복”,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쪽 참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나의 간증들

아이비 노쉬

선 교사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어렸지만 내가 후기 성도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나는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믿었다. 하지만 청년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선교사에게서 몰몬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전에도 들어 본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몰몬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이 참된지를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복음이 참되다면, 몰몬경도 참되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더는 모르는 체 할 수가 없었다. 복음이 참되다면 몰몬경도 참된 것이다. 나는 몰몬경이 참된지를

알지 못했기에 내가 믿어 온 모든 것이 이제는 불확실하게만 느껴졌다. 마음이 완전히 혼란스러웠고 '몰몬경은 참된가?'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없어지질 않았다.

하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진리에 대한 소망도 더 커졌다. 몰몬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날, 나는 몰몬경이 참된지를 알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

교사로 부름을 받으면서

나는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시기에 지부 회장님은 나에게 복음 교리반에서 몰몬경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주셨다. 나는 그것이 내가 몰몬경이 참된지를 알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리고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응답일지 모른다고 여겼고,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처음 몇 주가 지난 후, 몰몬경을 믿기 전까지는 결코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마다 펼쳐지는 이야기들

나는 매주 몰몬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이내 읽는 데 재미가 붙었다. 각 장마다 몰몬경의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나는 니파이가 시현에서 본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읽었다.

“나는 또 나사렛 성을 보았으며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나니 그 처녀는 심히 곱고 희더라. ……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하더라.”(니파이전서 11:13, 18)

행복의 계획에 대해 읽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구원에서 필수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앰올레크는 이렇게 가르쳤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범법을 짚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오실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속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앨마서 34:8~9)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 대륙에 있는 그분의 다른 양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분이 모든 국가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제3니파이 15:21)

간증은 조금씩 왔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빛을 발했으며 그분의 계획에 대한 이해력이 커졌다.(앨마서 32:28 참조)

나는 몰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임을 간증한다. 성신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고 금판에서 몰몬경을 번역한 참된 선지자임을 나에게 알려 주셨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경과 함께 나란히 작용한다. 그 두 경전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은 단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

글쓴이는 싱가포르에 산다.



우리 종교의 종석

“종석을 떼어 내면 아치가 무너지듯이, 교회의 모든 것은 몰몬경의 진실성과

더불어 서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 몰몬경이 참되다면,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그것이 참으로 참되다는 영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간증해 왔습니다만, 사람들은 회복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04쪽.

자유意志인가 아니면 도덕적 선택의지인가?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선택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둘 수 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 커진다.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집사

선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감독님과 접견을 준비할 무렵,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모른다. 내가 과연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처럼,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조셉 스미스-역사 1:28)를 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셉 스미스만큼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 대니(가명)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니는 여러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선교 사업을 고대하는지 누차 얘기했었다. 그런데 감독님과 접견을 한 후 대니가 달라졌다.

나중에 대니는 자신이 몇몇 청녀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제 선교 사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 말씀처럼, 대니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했던 것이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가르치듯이 진정한 자유는 순종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사용할 때



생긴다. 반면, 대니가 배웠듯이 자유의 상실은 불순종을 선택할 때 생기는 결과이다.

“어떻게 행동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좋은 나쁜든 우리가 한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²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존재

인간은 “자유로이 …… 택하고” “자유롭게 …… 행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자유의사”(니파이후서 2:27; 10:23; 교리와 성약 58:27; 힐라맨서 14:30)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경전의 가르침 때문인지 우리는 종종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말이 경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는가? 대신 경전에서는 “이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준 도덕적 선택의지에 따라 …… 교리와 원칙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1:78; 강조체 추가)라고 가르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선택의지라는 단어는 [경전에서] 그대로 나오거나 도덕적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나옵니다. …… 우리가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선택의지라는 신성한 은사의 필수 조건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적절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존재이자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존재로서 자유로이

선택할 뿐만 아니라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³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선택의지는 경전에 ‘도덕적 선택의지’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우리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음”(니파이후서 2:27)을 뜻한다.

선택의지에 대한 사탄의 전쟁

도덕적 선택의지는 구원의 계획에서 구심점이 된다. 그 때문에 전세에서 사탄은 그것을 멸하려 했다. 그는 반항하다 쫓겨났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모세서 4:3~4) 하려 애쓰고 있다.

사탄은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고 나쁜 습관과 중독에 빠져들며 사탄의 유혹에 저항할 힘을 잃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복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한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선택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둘 수 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 커진다.



구주의 모범

구주께서는 천국 회의에서 구원의 계획을 제안하시며 도덕적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 주셨다. 그분은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모세서 4:2)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물론이고 이후에 겿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행하고자(마태복음 26:39; 누가복음 22:42 참조) 우리의 나쁜 선택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길을 마련하셨다.

구주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⁵고 말할 것이다.

선교사 추천서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감독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나는 그 동안 좋은 선택들을 해 왔던 것에 대해 감사드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나는 과테말라에서 구원의 계획과 더불어 그 계획 안에서 도덕적 선택의지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르치며 주님께 봉사하게 되었다.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저는 이런 것들을 압니다”,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8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2쪽.
3. D. Todd Christofferson, “Moral Agency,” Ensign, June 2009, 47.
4.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저는 이런 것들을 압니다”, 8쪽.
5. 볼프강 에이치 폴, “선택의지의 은사”, 리야호나, 2006년 5월호, 35쪽 참조.

신화: 프리먼, 니키

“생각을 다잡으려고 하지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생

각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며, 거기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평범한 습관은 물론, 숨기고 싶은 습관까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¹

이런 축복도 생각해 보세요.

- 깨끗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고]” “성신은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 [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5~46)
- 깨끗한 생각을 하면 더 수월하게 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8:2~3 참조)
- 깨끗한 생각을 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마태복음 22:37 참조)

이 기사에 실린 의견들처럼, 깨끗한 생각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차근차근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남자나 여자는 부정한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 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 영원무궁토록 그리할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3:19)

구주의 속죄를 통해 생활에 변화를 꾀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합당한 음악, 합당한 생각”, *리아호나*, 2008년 4월호, 31쪽.



대중 매체와 친구

마음이 고양되는 영화나 음악, 책을 고르는 것이 좋은 시발점이 됩니다. 합당한 대화와 의로운

활동을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세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생각을 물리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앰버 에스, 18세,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기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좋은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경전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의 모범을 봅니다. 간증을 전하는 것 또한 깨끗한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샤 엠, 17세, 우크라이나 키예프



경전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경전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나쁜 생각이 들려고 하면 곧바로 좋은

생각을 떠올려요. ‘안 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대신에(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좋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통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감한 아들과 딸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닉 시, 16세 미국 아칸소





좋은 것, 아니면 옳은 것?
떠오르는 생각을 늘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붙들고 있을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생각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일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유혹하는 생각이 들면 좋은 노래를 부르거나 좋은 기억을 떠올리거나 기도를 하세요. 나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리사 피, 17세, 덴마크



리하이의 모범
니파이전서 15장 27절에서 니파이는 형제들에게 생명나무의 시현에서 부친이 더러움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리하이는 “다른 일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었던지라” 그 더러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움으로 가득 차려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로운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의로움과 덕으로 가득 차서 불결한 생각이 남을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티 더블유 16세, 미국 애리조나

찬송가

깨끗한 생각을 하는 데 찬송가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영이 고양됩니다.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더 침착해지고 해의 영광 상태로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찬송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만다 에이, 18세, 브라질 아마조나스

가족 경전 공부

부정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아침에 읽었던 경전 구절을 떠올리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가족은 함께 경전을 읽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루 내내 제가 좀 더 강해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알레나 더블유 16세, 스위스



성찬
성찬 기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이것들을 생각하라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현세의 이 여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

올바른 길로 붙들어 주는 사도 바울의 다음 권고를 따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립보서 4:8]’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감”,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0쪽.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행위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맥케이 엠, 18세, 미국 유타

다음 질문

“편찮으신 엄마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4년 11월 15일까지 liahona.lds.org (“Submit Your Work”을 클릭하세요)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공과

이번 달 주제: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됨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법

적절하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진리의 간증에 마음을 열도록 도울 수 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버스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교회에서 공과를 가르치면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거나 친구와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을 가르칠 기회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좋은 질문은 좋은 배움으로 이어지며, 다행스럽게도 공부하고 연습하고 배우면 누구라도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라

의미 있는 질문이란 깊은 생각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를 진리와 간증, 변화로 이끈다. 의미 있는 질문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피상적이거나 사실만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사실을 확인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 질문을 한다면 의미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2) 일상생활과 관계된 질문이다. (3) 뻔한 대답이 아닌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

질문을 하는 이유를 기억하라

질문은 채울 여지가 있는 공백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의 관심을 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다음 과정을 밝게 된다.

1. 여러분이 하는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2. 자신의 선택의지로 답을 생각하고 표현한다.
3. 이렇게 선택의지를 행사하면 성신이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한다.¹

이 과정을 명심하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어떤 질문을 피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예: “경전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라고 묻는 대신, “경전을 공부하면 여러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라고 묻는다.

단순히 공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 인지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저 특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질문 대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예: “회개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라고 묻는 대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바로잡습니까?”라고 묻는다.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라

복음을 가르칠 준비를 하기 위해 경전 및 현대 선지자 및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성령이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교리와 성약 42:14; 50:21~22 참조)

또한, 질문을 통해 사람들을 진지한 생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공부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러는 동안 여러분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도록 이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런 질문은 더 큰 통찰과 간증으로 이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도 이런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어떻게 사랑을 연습니까?”라고 묻는 대신, “모로나아서 7장 48절에서 ‘마음의 힘을 다해’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을 수 있다.



단계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라

더 많은 생각과 자아 성찰로 이어지는 질문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다. 서두에 쉬운 질문을 한 다음 후속 질문으로 더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두 개 더 할 수 있다. 다음은 그 간단한 예이다.

서두 질문	후속 질문
조셉 스미스는 몇 살 때 성스러운 숲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조셉 스미스처럼 진지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봉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

질문할 때 성신의 인도를 구하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혹시 아는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지. ■

주 1.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영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리차드 지 스코트,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쪽)

질문하는 요령

- 대답을 기다린다.
- 더 깊은 생각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후속 질문을 한다.
- 논란을 야기하거나 논쟁을 조장하는 질문은 피한다.
- 조용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한다.

교사, 가장 위대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 69~70쪽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세요

일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들

-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나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 구주는 가르치실 때 어떻게 질문을 사용하셨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 이번 주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질문을 적어 본다.
- 교회에서 반 토론의 일부로 질문을 해 본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힘과 성공을 찾는 법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아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덕에 눈앞에 놓인 선택의 폭이 넓게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잠시 어떤 이유로든 운이 덜 좋은 탓에 선택의 폭이 좁게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살아가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여러분께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6)이 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길이 어디든 그곳에 도달하여 개인적인 행복과 힘, 그리고 성공을 찾기 위해 반드시 내딛어야 할 첫걸음으로서, 저는 “[주님께]로 오라”(마태복음 11:28~30 참조)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들은 안드레와 빌립은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을 빼앗겨,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시자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누군가 뒤따르는 것을 감지하신 그리스도께서 돌아보시고 둘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요한복음 1:38) 다른 번역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로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어디 계시오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사십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와서 보라”고 이르십니다. 잠시 후 그분은 정식으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부르시며 다시 같은 뜻으로 권유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마태복음 4:19 참조)

우리 삶의 본질은 구주께서 지상에서 베푸실 성역의 서막이 열리는 이 장면에 나오는 간단한 두 가지 요소로 압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관한 그분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문제를 겪고 있건, 그분의 대답은 항상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와서 보라.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네 마음에 힘을 주리라.**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저는 성공과 행복, 안전이 보장된 다른 길은 알지 못합니다. 짐을 감당할 다른 방법이나 야곱이 말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행복”(니파이후서 9:43)을 찾을 다른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바탕으로 **거룩한 성약을 맺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아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독생자의 자비를 얻기에 충분한 신앙을 지닙시다. 그분과 그분의 복음으로 나아와 치유를 얻읍시다. ■

1997년 3월 2일 브리검 영 대학교 노변의 모임에서 발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적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며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실리아 이, 필리핀

.....

“구주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매 순간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리슨 엘, 미국 애리조나

.....



—가족 역사—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가족 역사는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친척들이 이미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해 본 적이 없으니 그저 난감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일지를 작성하거나 성전에 제출할 이름을 준비하고 살아 있는 친척에게서 가족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시작하건 여러분은 재미있고 의미 있게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기억하게 하는 개인 일지 기록

개인 일지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또는 기록할 만큼 흥미로운 일이 없어서 일지를 못 쓴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점점 더 애착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하루에 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길건 짧건, 흥미롭건 흥미롭지 않건, 그러한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이나 그날 일어난 일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제 삶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었던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제 일지 내용 중 하나를 읽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담한 검은색 일지에 기록해 둔 소소한 경험 하나를 들려주었고, 그녀가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삶에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크든 작든 받은 축복을 기록하면 그 축복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젬트리 더블유, 미국 유타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면서 발견한, 조상을 찾는 기쁨

침 레발을 당시에 가족 역사에 대해 많이 들어 보긴 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족 역사에 대해 기도하기로 했고, 즉시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상들이 제가 가족 역사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의식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 역사 과정을 수강하는 것으로 가족 역사를 시작하고 얼마 후, 저는 가족 역사 상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염려되었지만 저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외증조할머니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던 이모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친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관례 때문에 이모할머니는 많은 정보를 나누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그다음 날이 외증조할머니의 기일인데, 이제 그 자료를 태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 문서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쭙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 근처 가족 역사 센터에서 봉사하던 무렵에도 계속하여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증조할머니 두 분의 조부모께서는 이탈리아 이민자였으며 브라질 상파울루 부근에 그분들의 농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가족과 그 농장에 살던 친척 간의 연락은 끊겼지만, 우리 가족의 계보에 관한 책을 쓰던 사촌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제게 9년에 걸쳐 기록한 그 책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 책을 써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디, 브라질



성전 사업은 신성한 의식을 행하는 일

저는 개종자이며 가족 중 유일한 회원입니다. 저는 가장 신성한 의식 중 하나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고 배웠습니다. 한번은 성전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식에 관한 설명을 듣는 동안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제게 가족 역사 센터로 가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성전 의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FamilySearch 계정에서 어머니의 성전 의식이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하고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 일로 제 간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빈 에스, 필리핀

살아 있는 친척으로부터 배우라는 속삭임을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조부모 네 분을 모두 찾아뵈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짧게나마 여유로운 시간이 나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양쪽 조부모님과 각각 일주일씩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낡은 상자들을 열어 옛 편지들을 읽어 보고, 또 옛날





영원히 지속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조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한쪽에 제쳐놓으십시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

세계 어디에 계시든 기도, 신앙, 결심, 근면, 그리고 약간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은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훌륭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5쪽.

사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했고, 묘지를 둘러보았으며, 조부모님과 그분들의 친척들이 전에 살고 일했던 곳에도 가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상들과 조부모님, 부모님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조상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천 명가량 되는 조상의 이름을 갖고 돌아왔으며, 그중 많은 분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조부모님을 방문한 것은 제가 한 결정 가운데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셴리 피, 미국 캘리포니아

성전에 이름을 제출하고 느낀 편안함

개인 발전 기록부를 완성하려고 아버지께 가족 역사에 대해 여쭙자,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몇몇 가족의 이름을 찾았으나 시간이 없어 성전에 제출할 준비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도왔고, 그 결과 그 가족들이 성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저는 일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 동안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고 아버지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피시(전용 카메라로 대량의 문서를 찍어서 축소해 저장한 뒤 전용 판독기로 읽을 수 있게 고안된 마이크로필름의 일종-옴긴이)까지 주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필름을 읽기가 어려울 때면, 저는 조용히 기도를 드린 후 종이를 꺼내 형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면 감감한 데서 갑자기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저는 가족의 이름을 상당히 모으게 되었고, 와드 청소년들의 도움으로 대리 침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 부모님을 비롯한 와드의 회원들이 그 이름 카드들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다음 의식들을 완료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저는 제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좋기도 하고 긴장도 됐습니다.

성전에 가는 길에, 아버지는 제가 개인 발전 기록부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했던 가족 이름 카드 중 몇 개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개가 빠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제 약혼자와 함께 의식을 완료하려고 그 이름 카드들을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 이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녀 활동 중에 제가 찾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신성한 성약을 맺던 순간, 휘장 양쪽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영원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

할리 피, 미국 아이다호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lds.org/youth/family-history/experiences에서 가족 역사 경험을 나눠 주세요.

조상을 찾으면 나를 발견합니다

내 삶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탐험해 보세요.
FamilySearch.org에 가 보십시오.

사진 출처: 데이트 스톱커



선교사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 나를 접견하신 스테이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님,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형제님의 결심을 바꾸게 하려고, 지금부터 형제님의 생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반대하는 이상한 힘

알세니르 데 소우자

열 다섯 살에 교회에 들어온 나는 그로부터 4년 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스테이크 회장님과 접견할 때, 그분은 내가 전임 선교사로 주님께 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영감을 받으신 스테이크 회장은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말씀을 하셨다. “형제님,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형제님의 결심을 바꾸게 하려고, 지금부터 형제님의 생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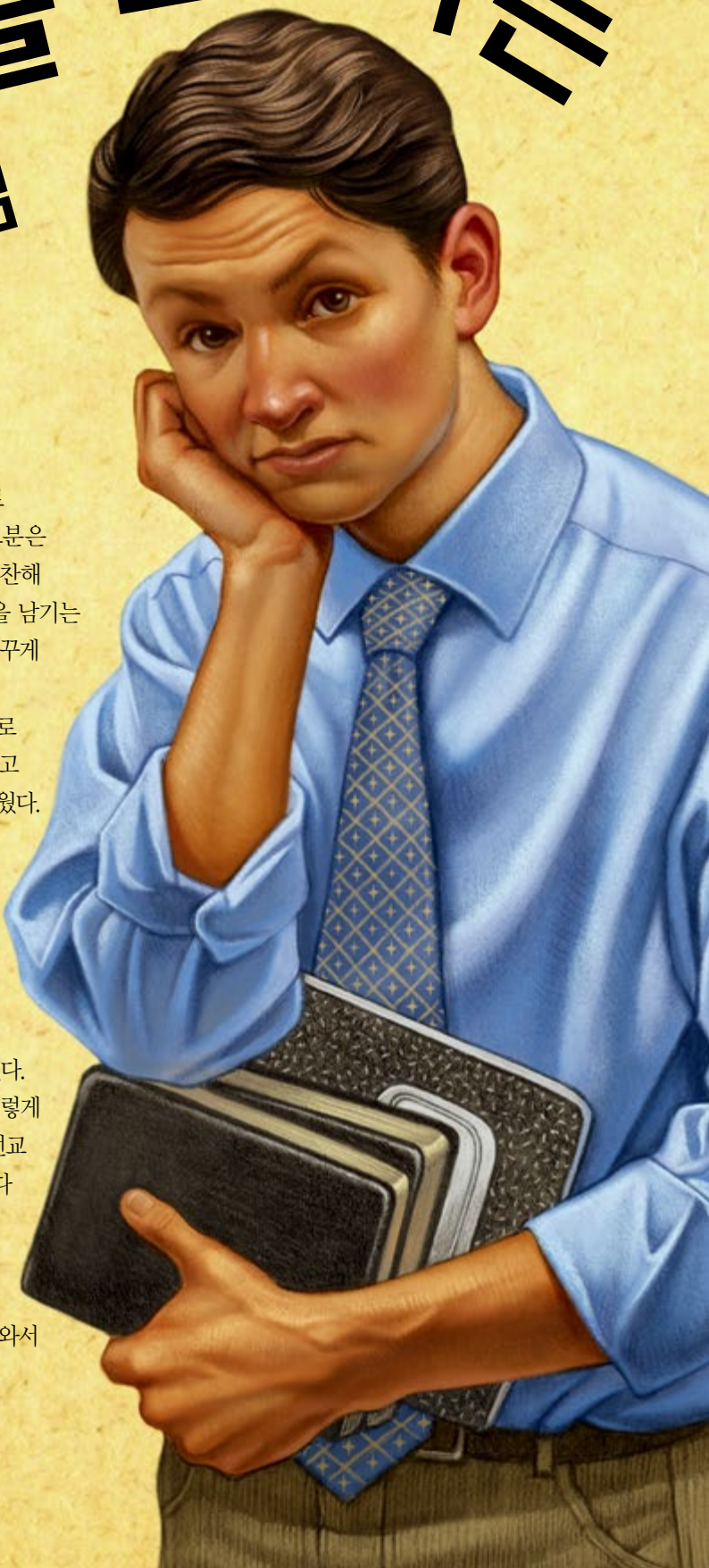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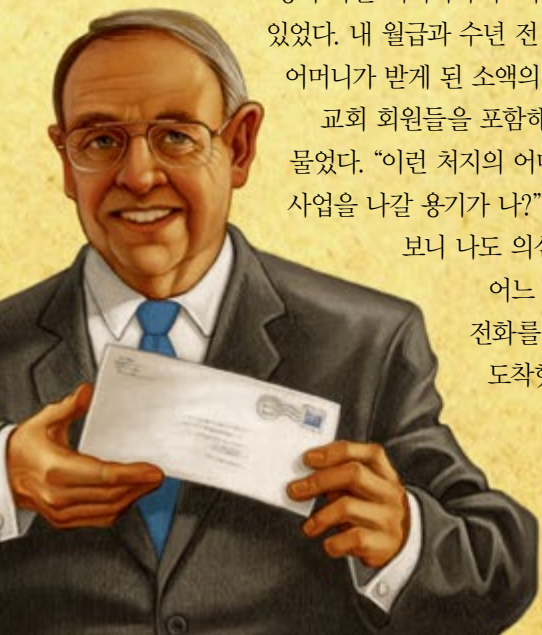
선교사 부름장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제록스에서 수습 사원으로 일했다. 덕분에 선교 사업을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태 드릴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로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어머니가 폭행을 당해 부상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 주셨다.

당시 나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과 함께 세를 살고 있었다. 내 월급과 수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받게 된 소액의 지원비가 수입의 전부였다.

교회 회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런 처지의 어머니를 두고 집을 떠나 선교 사업을 나갈 용기가 나?”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스테이크 회장님이 전화를 거시고는 부름장이 도착했으니 저녁에 사무실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대는 무엇인가
선한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육받고자
하는 장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선교 임지의 첫 번째 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어떤 주요 결정을 내릴 때에 주의하고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결정하였다면,
선한 일에서 물러서게 하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에 따라
생활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지금도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압력이
심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8쪽.

교회 본부에서 온, 그 고대하던 봉투를
받아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기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했다.

같은 날, 직장에서는 부서장이 점심
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부서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고, 그동안

내가 받은 훈련이며 회사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더니 회사의

요직에 있던 그가 그 도시
사람들 대부분이 꿈꿀 법한
제안을 했다. “자네는 여기서

수습 사원으로 일을 아주
잘해 왔네. 그래서 자네를
정식으로 채용할 테니
계속 일해 줬으면 싶네,
어떤가?”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버려둔 채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이냐고 묻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럼에도 나는 경전과 교회

지도자에게서 성스러운 방식으로
배운 몇 가지 원리를 떠올렸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 교회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시리라는 것과,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또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부서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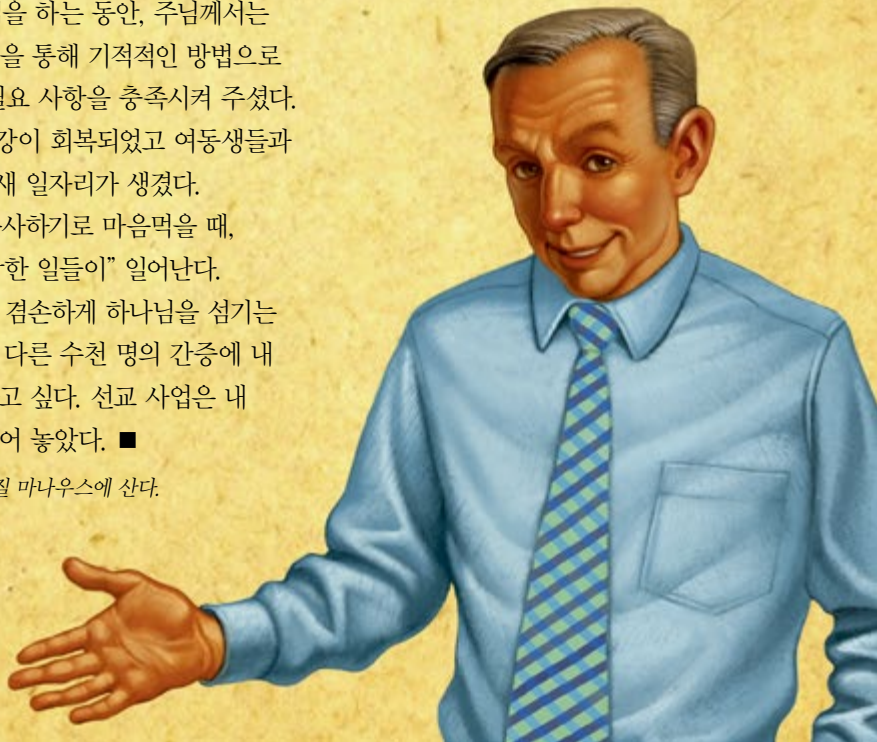
그의 말이 아직도 귓전에 울린다. “분별
있는 젊은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믿을 수가 없군.”

나는 그 제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28일 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교회 친구들을 통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셨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여동생들과
어머니에게 새 일자리가 생겼다.

주님께 봉사하기로 마음먹을 때,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섰던 다른 수천 명의 간증에 내
간증을 더하고 싶다. 선교 사업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

글쓴이는 브라질 마나우스에 산다.





해 야 할 일

미 리 배 우 기

노르웨이 오슬로의 청소년들, 전임 선교사 생활을 준비하는 하루를 보내다.

카트린 아펠세스-아넨슨, 리차드 엠 롬니

토 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선교사 봉사 연령 변경 지침을 발표한 후, 교회의 모든 청소년은 봉사하라는 권유뿐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권유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 준비 방법의 하나는 실제 전임 선교사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을 미리 배우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청소년들은 노르웨이 오슬로 스테이크의 프레드리스타드 와드가 주최한, 일일 “선교사 체험”에서 그 준비를 해 볼 수 있었다.

“선교사 훈련원” 입소

청소년들은 집회소 내부의 선교사 훈련원을 나타내는 방에 모였다. 모스 와드의 야콥 알이 말한다. “한 국가에 대해 공부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선교사로 부름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 경험해 보았고 우리가 살던 곳과는 아주 다른 곳으로 부름을 받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부 회장”과의 만남

오슬로 와드의 사이먼은 “그다음에 우리는 옆 방으로 가서 선교부 회장 역할을 맡은 귀환 선교사를 만났어요.”라고 말했다. 그 귀환 선교사 두 명은 우리가 선교 사업 동안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 들려주었다. 사이먼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경험하게 될 일에 관해 귀환 선교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름표를 받고 동반자를 지정받았으며, 항상 동반자와 함께 있으라는 지시도 받았다.

필요한 자질 키우기

청소년들은 워크숍에서 영적 발전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빨래하기, 예산에 맞춰





가장 중요한 준비

“선교사의 부름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전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5쪽.

생활하기, 건강 유지하기와 같은 현세적 필요 사항을 관리하는 법도 배웠다.

오슬로 와드의 잉게 소피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다룬 워크숍이 특히 좋았어요. 제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프레드릭스타드 와드의 칼 프레드릭 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토론이 좋았어요. 전에는 선교사들은 공부해야 할 성구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세미나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가 선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청남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워크숍 중 하나로 흰 와이셔츠를 직접 다려 본 것을 꼽았다. 야콥은 이렇게 말한다. “전임 선교사가 되려면 연습해 두어야 할 실질적인 자질이 많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산드비카 와드의 사라 알은 이렇게 말한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회원들 역시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봉사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과에 다양한 나라의 요리법을 포함하기도 했다. 사이먼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새로운 음식을 먹어 봐야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낯선 음식을 먹는 나라로 부름을 받아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하기

프레드릭스타드 와드의 리스 안드레아 오는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에 청소년 두 명과 얼마 전 귀환한 선교사 두 명의 간증을 들은 뒤에 ‘주 섬기라’를 불렀어요. 항상 이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전임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부터 평생 선교사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

글쓴이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산다.

선교사는 어떤 생활을 할까요?

youth.lds.org에서 “Missionary Preparation(선교사 준비)”를 클릭하고 비디오와 기타 자료 및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선교사 봉사를 위한 준비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미래의 봉사를 위해 지금부터 봉사할 거예요

미체 발보사

실화에 근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사무엘상 12:20)

“**교** 회까지 달리기하자!” 몰몬이
야자 나무 너머로 솟아오른
교회 첨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동생 모라이언을 앞질러
가려고 힘껏 달렸습니다.

몰몬과 모라이언은 부모님을 따라
집에서부터 이미 1.6킬로미터 가량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두 형제는
지치지도 않고 힘껏 달려가 집회소 건물
밖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둘은 멈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승부를 가리려는 참에 한
남자아이가 “축구 할래?” 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몬은 축구를 무척 좋아했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다음 날 예배를
준비하려고 교회 건물을 청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몰몬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몰몬과 모라이언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몰몬이 의자를
움기고 아빠와 함께 바닥을 쓰는
동안 모라이언은 엄마와 함께 바닥을
걸레질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두 형제는 함께 화장실
거울을 닦았습니다. 모라이언이
말했습니다. “교회 청소는 하기 싫을 줄
알았어. 그런데 재미있네. 형은 어때?
형도 그래서 축구 대신 여기 온 거지?”

몰몬은 아빠를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워드 감독이셨지만 시간을 내서 집회소 청소를 도와줍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빠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야.” 몰몬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워드의 선교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선교사들은 집집이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과 몰몬경을 나누는 일로 분주합니다. 지금 두 형제가 청소하는 교회 건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나중에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야.’ 몰몬은 생각했습니다. ‘예배 전에 교회를 청소해 두면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몰몬은 내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생이랑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흰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서 교회로 걸어와, 초등학교 방에 의자를 깔고 노래책들을 놓아둘 것입니다.

몰몬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교회 부름에서 봉사하고 싶기

때문이야.’

몰몬은 자신이 곧 집사가 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성찬을 전달하고 다른 많은 일을 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내년에 신권을 받기 때문이지. 그걸 준비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어.’

몰몬이 신권을 받기 위해 벌써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상을 받았으며, 복음대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몰몬은 거울에 비친 동생을 보고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봉사하는 것이 나중에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신권을 받을 준비



본부 청남 회장 데이비드 엘 벡의 조언

- 여러분의 생활에 영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와 사귀세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세요.
- 집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와 **신앙에 충실함** 책자에서 신권에 관한 부분을 읽으세요. 워드나 지부의 신권 예비 모임에 참석하세요.
-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준비를 하세요.
- 다른 청소년들과 참여하는 재미있는 활동과 영적 모임을 기대해 보세요.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에게 의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마틸드 청녀가 될 준비를 하다

젠 월크스, 미국 유타

마틸드는 머지않아 청녀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마틸드의 할머니는 본부 청녀 회장님이신 보니 오스카슨 자매님이십니다. 할머니는 마틸드에게 멋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나 할머니, 와드 자매님께 청녀 시절을 기억하는지 여쭙 보세요. 재미있는 점들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마틸드는 할머니를 “모”라고 부르는데, “모”는 어머니를 뜻하는 스웨덴어 *모더(moder)*를 줄인 말입니다.

예전에는



청녀 시절, 오스카슨 자매님은 목표를 완수할 때마다 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으로 된 띠를 마련하여 충실을 상징하는 꽃과 함께 배지들을 바느질해 달았습니다.





예비 청녀를 위한 오스카슨 자매님의 조언!

-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 경전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그리고 리아호나를 읽으세요.
- 청녀 주제를 공부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청녀가 매주 반복해서 청녀 주제를 낭독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사야서 18:9)
다음의 청녀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한다.

신앙 · 신성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 지식
선택과 책임 · 선행
고결성 · 정결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 지금은



이 목걸이는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진리와 의를 수호하라는 의미입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에 있는 여러 경험과
활동을 완수하면 리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청녀 메달을 받습니다.

새로운 시작

마틸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특별한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재미있는 공과도 듣고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마틸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상 활동을 완수해
나가고 있으며, 신앙개조도
외워 가고 있습니다.

마틸드가 기대하는 일들

- 매주 열리는 활동 모임
- 다른 청녀와 사귀기
- 청녀 캠프 참여

특별한 추억

2013년 4월 6일, 마틸드는 사촌들과 컨퍼런스 센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할머니께서 연차 대회에 모두를
초대하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청녀
조직의 회장으로 지지받으시자 모두 놀라워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빛을 발하리

담대하게 ♩ = 58-68

작사: 쟈 핀보로우
작곡: 제니스 캡 페리

F C F Gm7 C7 F

소녀 1. 에 스 더 처 럼 나 도 하 늘 아 버 지 의 계
2. 에 이 비 시 와 같 이 복 음 빛 나 누 며 힘

Bb C7 A7 Dm G7 C7

회 따 라 용 기 와 신 앙 으 로 주 님 계 명 지 키 리 소년
을 다 해 늘 라 운 진 리 전 해 내 신 앙 밝 히 리 라 모

F C F Gm7 C7 F

파 이 처 럼 나 도 이 웃 축 복 하 고 명
로 나 이 와 같 이 의 를 수 호 하 며 고

Bb C7 A7 Dm Bm7 C7 F 후렴

에 와 존 중 으 로 하 늘 아 버 지 계 획 수 호 하 리 다 함께
귀 하 고 충 실 한 사 람 되 리 기 치 높 이 들 고 서 빛 을

Bb F C F Bb F Gm7 C7 F

발 하 리 나 준 비 하 리 주 님 의 말 씀 배 워 나 누 리

저작권 © 2013 Jan Pinborough and Janice Kapp Perry. 판권 소유.
이 곡은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이 표시는 반드시 각 사본에 다 포함되어야 함.

특별한 증인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어떻게 가족 역사 사업을 도울까요?

쿡 장로님은 패밀리 트리 모임을
해 보라고 제안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온 가족이 각자 가족
역사와 가족 이야기, 사진을 가지고
모여 보세요.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지니셨던
특별한 물건들도 함께 가져오세요.

가족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건 설레는 일이에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성전 의식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족들에게 성전 사업 임무를
지명하세요.

가족들을 도와서 스캔한 이야기와
사진을 FamilySearch.org 사이트의 패밀리
트리(Family Tree)에 올려 보세요.

“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7쪽에서 발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약속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몸상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자의 성별은 각 개인 의 전체와 현재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 세계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위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사랑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의 하나로 계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함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약속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어조와의 기입(시편 127:3)이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리적·영적으로 필요한 사랑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태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에 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경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여기까지, 배우자나 자녀를 확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하고 현재의 신자들과 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성호부조회 총회에서 모든 비 랑클리 회장이 참석한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에린 샌더슨 및 진 빙엄

어린이에게는 가족 안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집마다 각 가족은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한 가족 한 가족이 모두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가족을 굳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예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행복, 친절,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일하고 놀며 서로 용서하고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며 가족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성구

• 요한복음 15:11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가족이 굳건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굳건한 가족이 되기 위해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로고나 다른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 깨끗한 빈 깡통을 장식합니다. 어떻게 가족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위의 쪽지 그림 안에 적습니다. 쪽지 그림을 오려 내어 깡통에 넣습니다. 매일 깡통에서 쪽지를 하나씩 뽑아 적힌 대로 실천합니다. 생각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칠레에 사는 바르바라입니다

애미 제인 레빗의 인터뷰 노트에서

바르바라는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에 있는 칠레라는 나라에 삽니다. 칠레는 길고 가는 리본처럼 생긴 나라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처럼 덥고 건조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에아스테르 섬처럼 덥고 습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르바라는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 살고 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삽다.



저희 반에 교회 회원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몰몬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은 저의 단팥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었고, 점심시간에 저희 둘 다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홉 살이고 남동생이 두 명 있습니다. 저는 좋은 누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동생들을 돌보며 놀이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좋습니다. 자라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2013년에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아빠께서 침례를 주시고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나 신이 났던지! 그 특별했던 일을 저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Hola,
amigos!**

* 스페인어로 "안녕,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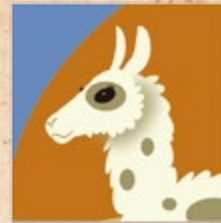
칠레에는 재미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8월 18일은 독립 기념일이고, 19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그 두 기념일에 칠레
사람들은 "라 쿠에카"라는 전통춤을 추고
엠파나다스라는 맛있는 고기 파이를
먹습니다.



주말에 저희 가족은 집 근처 산에서
도보 여행을 하거나 사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합니다. 또, 해변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성탄절에는 참치로 속을 채운
토마토로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칠레에서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
전날 밤 자정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 있어도
되는 날입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칠레 산티아고 성전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는 처음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1983년 9월 15일에 헌납되었는데,
남아메리카에는 두 번째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출발해 봅시다!

바르바라는 좋아하는 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가방에 넣어 가고
싶나요?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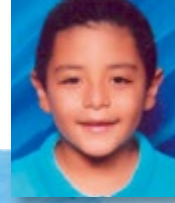


침례를 앞둔 어느 날 할머니 댁에 있었을 때, 할머니는 필요한 걸 가지러 지하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만 발을 헛디터 넘어지셨는데,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텔레비전을 보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10분쯤 후, “툼!”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찾아 나섰고,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계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힘으로는 할머니를 일으킬 수가 없어서 이웃집으로 열린 달려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오셔서 할머니를 일으켜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툼, 넌 성신의 음성을 들은 거란다. 네가 내 목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거든.”

저는 성신이 제게 속삭였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아서 저는 행복합니다.

툼 알, 8세, 독일



리우 시, 7세, 에콰도르



나탈리아 에이, 10세, 콜롬비아

루마니아에 사는 여덟 살 올리비아는 엄마를 도와 집안 청소하는 걸 좋아합니다. 엄마는 올리비아와 올리비아의 친구 열세 명을 가르치시는데, 올리비아는 쉬는 시간에 선생님 흉내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여행을 가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올리비아는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성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히 여깁니다. 올리비아가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는 “선지자 따라”(어린이 노래책, 58)입니다.



브라질에 사는 일곱 살 티에리는 초등학교에 가고 찬송가를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티에리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압니다.



직 접 그린 그림이나 여러분의 사진, 또는 경험한 이야기를 liahona.lds.org에 제출해 주세요. “Our Page”라는 제목으로 이메일(liahona@ldschurch.org)을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직접 보내도 좋습니다.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각 제출물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성명, 성별, 나이(만 3세에서 11세), 부모님 성명, 와드 또는 지부,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어린이의 원고와 사진을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표현을 명확하게 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원고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누가복음 21:36).

여덥 살 때 저는 사촌 두 명과
함께 식료품을 구하러 인근
마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와 숙부, 숙모님이 우리를
그렇게나 신임하셨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말 세 필에 올라타고
여정을 나서던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눈부셨습니다.

초원 한복판을 지나던 우리는 말에서
내려 구슬치기를 하자는 변뜰이는
생각을 해 냈습니다. 우리는 놀이에
열중한 나머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것도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고 깨달을 즈음에는 말에
올라탈 시간도 없었습니다. 폭우와

우박이 너무 세차게 퍼부어서 우리가
고작 생각해 낸 대책이라고는 말
안장을 내린 뒤 안장용 깔개 아래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말들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말도 없이, 축고 젖은 몸으로
최대한 빨리 인근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우리는
집을 하나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가족은 몸을 말리게 해 주고, 콩을
넣은 맛있는 부리토[옥수수 가루로 만든
또띠아에 고기나 콩 등을 싸서 먹는
멕시코 음식-웁긴이]도 차려 준 뒤 흙
바닥으로 된 방에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촌들과 저는 찬란한 태양과
아름다운 아침 하늘을 보며

깨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세 소년을 찾아
헤매던 한 남성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 광경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우리를
찾아 헤맸고, 그리고 그분들 맨 앞에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숙부와 숙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은 기쁨에 울음을 터트리며 우리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은 온통 영적인 폭풍의
표적들로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간증을
키우며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02쪽에서 발췌

가족은 한 팀



모두 함께하면 이기기 쉬워요.

세랄리 하디
실화에 근거

“언제나 도울 때는 [행복이 넘치네]”(어린이 노래책, 108쪽)

아빠와 축구장을 나서던 애먼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팀엔 훌륭한 선수들도 많은데, 왜 점수가 안 날까요?”

아빠는 축구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아실 것만 같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팀으로 경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구나. 다들 골을 넣고

싶겠지?”

애먼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부가 골만 넣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 혼자선 골을 넣을 수 없어. 먼저 수비수가 상대 팀에게서 공을 가져와야겠지?”

애먼은 으하하 웃음이 났습니다. “공이 없으면 어떻게 골을 넣겠어요.”

“맞아. 그다음엔 수비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을 넘겨주지. 혼자서는 골을 넣을 수 없어.”

“그러네요.” 애먼이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생을 업고 저녁 준비를 하시던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는 어땠니?”

“또 졌어요. 하지만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자세가 멋진 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파요!” 미겔이 새뮤얼, 루카스와 함께 달려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애들아, 식탁 차리고 장난감 치우는 것 좀 도와줄래?”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아이는 모두 볼멘소리를 합니다.

새뮤얼은 “저는 장난감 안 가지고 놀았는 걸요.” 하고 말합니다.

미겔도 불평합니다.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아빠께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애먼네 팀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뭔데요?” 새뮤얼이 물었습니다.

“우린 다 따로따로야.” 애먼이 말했습니다. “다들 저녁 먹는 골만 넣으려고 해. 일은 모두 엄마한테만 맡기면서 말이지.”

“웁지!”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팀으로 일할 수 있을까?”

애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새뮤얼이랑 식탁을 차리면 어떨까요? 다른 애들은 장난감을 치우고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은 금세 차려졌습니다. 애먼은 기도를 하려고 손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이 한 팀이 되어 일해서 기뻐했습니다. 애먼은 축구팀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

글쓴이는 캐나다 앨버타에 산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속임수

가을은 송어들이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해 몸을 만들고자 지칠 줄 모르는 식욕으로 덤벼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플라이 낚시꾼에게는 특히 즐거운 시기입니다.

플라이 낚시꾼의 목표는 교묘한 눈속임으로 송어를 잡는 것입니다. 뛰어난 낚시꾼은 송어의 습성, 날씨, 물의 흐름, 송어가 먹는 벌레 종류, 그 벌레들이 부화하는 시기 등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용할 미끼를 손수 만들기도 합니다. 낚시꾼은 작은 낚싯바늘에 끼울 가짜 벌레 미끼를 만들 때 완벽해야 한다는 점을 압니다. 송어들은 아주 사소한 결점도 눈치채고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어가 수면을 박차고 나와 미끼를 물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저항하다가 끌어 올려지는 모습은 매우 박진감 넘칩니다. 낚시는 낚시꾼의 지식과 기술이 고귀한 송어와 겨루는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속여 낚을 때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며,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루시퍼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송어가 굶주렸다는 사실을 아는 낚시꾼처럼 루시퍼도 우리의 “굶주림”과 약점을 알고 가짜 미끼로 유혹합니다. 그 미끼를 물면 우리는 평화로이 흐르는 삶에서 무자비한 사탄의 영향력 안으로 낚이게 됩니다. 그러나 낚은 고기를 해치지 않고 물에 도로 놓아주는 플라이 낚시꾼과는 달리 루시퍼는 우리를 자진해서 놓아 주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자신이 낚은 인간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거짓과 속임수로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천국 회의를 시작한 순간부터 사탄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습니다.”(모세서 4:3)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를 둘러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미끼를 던져 놓고서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먹이를 물기만을 기다리며 속임수로 우리를 낚으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가짜 낚시꾼인 루시퍼가 던지는 가짜 미끼에 주의하십시오. 루시퍼가

던지는 수많은 위험한 유혹을
분별하고 뿌리칠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기릅시다.

그리고 어떤 종류든
중독이라는 미끼에 걸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08~110쪽에서 발췌



통찰



여러분은 오늘날의 개척자입니까?

“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걸었던 자랑스러운 초기 개척자들이 계시지만 오늘날 살아 있는 개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록 손수레를 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물문경을 통해, 그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회개를 통해 침례의 물로 들어가 풍요로운 복음의 토양에 자신들의 발을 굳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옳고 참된 것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그들은 영생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44쪽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라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수호한 다섯 명의 청년 성인을 만나 봅시다.

청소년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법

적절하게 구성한 질문은 훌륭한 가르침 도구가
됩니다. 기사를 통해 방법을 알아보세요.



54쪽

어린이



68쪽

청녀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님과 손녀딸 마틸드가
여러분이 청녀가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즐거운
일들을 알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